

특별한 여행. 2022년 5월 29일 인천 함박마을 38명의 고령인들과 봉사자가 함께
여사유적지와 바다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출발할 때는 서로 낯설었지만, 끝날 땐 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9

중요한 사람들

평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사)좋은벗들 가족이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사)좋은벗들이 만들어가는 통일세상에 소중한 씨앗을 뿌려주세요.
씨앗 하나하나가 모여 평화롭고 갈등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갑니다.

♥ 후원회비는 이렇게 내세요

- **CMS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CMS를 이용하면 자동이체처럼 간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CMA 신청은 좋은벗들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후원신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소식지 뒷면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좋은벗들에 주시거나 FAX로 보내주세요.



-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 (사)좋은벗들]

국민은행 086-25-0021-251 농 협 100080-51-038056

- **후원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TEL 02-587-8996 / FAX 02-581-4077(좋은벗들)

우리나라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분,
현재에도 광화문광장에 넘뜰하게 서 계신
이순신장군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만나는
통영 역사기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대의 영웅 이순신
통영에서 만나다!**
(2022. 06. 19)

2022 통영역사기행

16세기 조선의 무신이자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수군을 통솔했던 제독이며
구국 명종이다

한국사에서 성웅으로 존경 받는 군인으로
대표적인 조선의 영웅
독보적인 정적함과 청렴함을 가진 인물로
전쟁 중에 마지막을 맞이한 인물

한산도가 보이는 아름다운 통영에서
충무공 이순신, 그의 별자취를 따라가본다

일 시 : 2022년 6월 19일(일), 오전 9시~오후 4시
장 소 : 통영 여객선터미널(모이는 곳)
참가비 : 11,000원/통영시민(6,000원) (달빛기행 운행 버스비 별도: 1만4천원)
준비물 : 신분증, 도시락, 간단한 산발, 텀플러, 개인발개, 모자, 안전지(AAA) 4개

평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좋은벗들

(사)좋은벗들은 다름이 없는 삶을,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하고
 좋은이웃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기를,
 또한 모든 생명이 한 데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획 1 ————— 좋은벗들 활동가 이야기

- 04 화성 좋은벗들 봉사자를 소개합니다 | **조민경**
- 11 수성 좋은벗들, 좋은이웃과 만남의 날을 가졌습니다 | **송경희**

좋은이웃되기 ————— 가정방문

- 17 안정된 분위기라 좋습니다 | **박지혜**
- 18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 **김미정**
- 20 어색하지 않은 대화 | **최옥분**
- 22 살만한 세상입니다 | **김태운**
- 25 밝아진 분위기에 마음도 가벼워 | **김해원**
- 27 혼자 건디느라 힘드시죠 | **김선희**
- 28 마중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영섭**
- 30 새로운 인연 감사합니다 | **노정숙**
- 31 나들이 기념품 배달 완료 | **박용숙**
- 32 통증이 심하지 않기를 | **이정원**
- 34 이웃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 **김명신**
- 36 어디든 찾아가 볼겠습니다 | **황재영**

나들이

- 37 즐겁게 놀았습니다 | **조경옥**
- 38 꺾충꺾충 뛰고 | **유현주**
- 40 눈이 부시게 화창한 날 | **민재운**
- 42 안산, 시흥, 광명 3개 지역이 한자리에 | **이정원**



산모/영유아 지원

- 43 얼마나 컸을까 | 최옥분
- 44 밤에 잘 자렴 | 민재윤
- 47 백일 축하해 | 서태원
- 48 엄마의 걱정 | 이정원
- 51 벌써 웅알이도 하고 | 정정숙

53 제19차 온라인 통일축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획 2 ————— 특별한 여행

- 54 추억을 함께 하는 우리는 친구 | 구혜영

기획 3 ————— 역사기행

- 60 시대의 영웅 이순신 통영에서 만나다 | 백창열
- 66 광주, 5.18 그 아픈 역사 | 전주희
- 69 광주 민주화운동 사적지 소개 | 이승용

통일기도

- 74 부천 통일기도 | 양한미
- 77 8.15광복절 맞이 평화통일기도 | 장희정, 김천호

80 후원해 주신 분들



“

기획 1

좋은벗들 활동가 이야기

안성, 오산, 평택, 화성 네 지역이 모인 화성지회는 현재 25명의 좋은이웃분들과 고정 활동가 6명이 함께 좋은이웃되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19 여파로 대면활동이 제한되고, 또 온라인 정토회로 전환되면서 좋은이웃분들과의 연락도 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통일 축전 참여를 시작으로 2022년 설 명절 방문을 통해 그간의 좋은이웃분들 근황을 듣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

화성 좋은벗들 활동가를 소개합니다

조민경 화성 좋은벗들

안성, 오산, 평택, 화성 네 지역이 모인 화성지회는 현재 25명의 좋은이웃분들과 고정 활동가 6명이 함께 좋은이웃되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19 여파로 대면활동이 제한되고, 또 온라인 정토회로 전 환되면서 좋은이웃분들과의 연락도 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통일 축전 참여를 시작으로 2022년 설 명절 방문을 통해 그간의 좋은이웃분들 근황을 듣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절 방문을 주 활동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일상 방문을 통해 ‘좋은 이웃되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니 나누는 이야기도 깊어지고, 방문했을 때 들었던 좋은이웃분들의 상황을 떠올리며 좀 더 필요하고 적절한 선물을 고를 수 있어 좋습니다. 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직장 생활은 어려움이 없는지, 아이들 육아와 남한에서의 적응 등 소소한 생활 이야기에 함께 웃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에 코 끝이 짙~해지기도 합니다. 그 분들이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조건

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기도 합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좋은이웃분들과의 나들이,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과 함께할 김장 담그기 등 좋은이웃분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통일축전 행사에서 만나 좋은이웃의 정을 나눌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누구와도 좋은 벗이 되겠습니다.'라는 명심문이 자꾸 되뇌어진다는 화성지회 활동가들을 소개합니다.

좋은이웃 되기 활동을 하게 된 계기

유미자: 소신이 있어 활동하게 된 것은 아니고, 정토회를 다니기 전 성당에서도 4년 정도 좋은벗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성당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의료진 방문 시에 안내하고 간식을 준비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앞장서서 하는 일에 아직은 소극적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분명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벗들 지역담당을 맡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섭: 큰 오빠가 6.25 전쟁 때 의용군에 끌려가셨고, 2002년 이산가족 만남을 통해 북에 계시는 오빠를 가족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북에 살고 계시는 오빠 생각이 나서 '북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불교대학 담당자가 좋은벗들 활동을 담당하고 계셨는데 다른 일이 많다 보니 좋은이웃에 관심이 있는 제가 그 일을 받았고 막연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숙: 수원지회에서 활동하다가 오산지회 총무를 맡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산지회의 좋은벗들 봉사활동 담당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최효준: 지회에서는 꾸려진 대로 방문을 하다 보니 처음엔 좋은이웃들의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좋은벗들 활동에 관심은 있었지만 좀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일상방문을 하면서 여러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니 ‘이 분께는 말동무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정숙: 저는 평택으로 이사오면서 화성지회에 소속되었습니다. 전에 활동하던 지회는 작아서인지 실천활동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화성지회는 실천활동이 활성화 되어있고, 저는 지회의 지원담당이다 보니 이런저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통일담당 사정상 지원을 하다 보니 좋은벗들 활동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방문을 하며 관심이 생겼습니다. 많은 일 덕분에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조민경: 불교대학 때 설 명절 방문으로 처음 좋은벗들 지원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막연히 그 좋은이웃분들이 남한에 고마워하겠지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 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을 보며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고 왜 내가 불편

한가 살펴보니 밑마음이 보였습니다. 그 때는 다시는 뵙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나는 저 분들의 삶이나 문화를 이해하려 한 적이 있나?’ 하고 돌이켜져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활동을 오늘까지 이어온 것 같습니다.

좋은벗들 활동을 하며 느낀점

유미자: 성당에서 봉사할 때는 좋은이웃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웬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이웃들이 반겨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어 하지 않아요. ‘세상의 누구와도 좋은 벗이 되겠습니다’는 문구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감대가 생기면 점점 편안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활동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만나는 시간을 잡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은이웃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중간중간 들기도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윤영섭: 명절 방문 때는 말씀이 많지 않아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코로나 전에 천안으로 봄나들이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활동가들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지 오래된 남성 한 분과 6개월 정도 되신 여성 두 분이 함께 가셨는데, 제가 준비한 음식을 세 분이 참 잘 드셨어요. 음식 솜씨는 없지만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셔서 기뻐합니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진심을 보이면 그분들도 가까이 다가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은 약속잡기가 힘들

어요. 약속하고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약속이 어그러지는데, 미리 연락 좀 주시지 하는 마음을 보며 나를 돌아보게 돼요. 처음에는 대답도 잘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감사하다는 연락도 주시고, 일상 방문에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사람은 자주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숙 : 좋은이웃분들과 나들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설거지 담당이었는데 그때 그릇이 산더미였던 기억이 납니다. 오산은 좋은이웃 가정이 2가구인데 명절 방문하며 선물 고를 때 참 행복했어요. 주어진 예산으로 고르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분들께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실속 있는 선물을 하려고 했어요. 선물은 누구를 위해 고를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린 한 좋은이웃분은 형편이 좋아져서 이사도 하셨어요. 오산 지역 좋은이웃 두 분 모두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 좋습니다. 항상 반갑게 대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봉사하며 뿌듯합니다.

최효준 : 좋은벗들 봉사를 하면 제가 사는 지역에 정해진 멤버들과 다녔습니다. 좋은이웃분들께 각각 김 한 박스를 선물했는데 영양꾸러미와 비교가 되어 불편한 마음이 있어 명절 방문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정성 들여 준비하신 선물인데 어리석은 마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 내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정숙 :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나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좋은이웃이 법륜스님도 잘 알고, 정토회도 잘 알고 계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에 신규신청자 방문을 했는데 법륜스님도 모르시는 것 같고, 종교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나와 모든 면이 달라 깜짝 놀랐고, 그러니 불편한 마음이 올라왔고, 듣는 내내 제 표정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 ‘세상의 누구와도 좋은 벗이 되겠습니다.’는 명심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어 드리려고 활동을 하는 것인데 머리 속에는 제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졌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구나 느꼈습니다. 담당과 활동가분들이 선물 하나 고르고 포장 하나에 신경 써 주시는 모습에 감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싶어요.

조민경 : 활동하며 사람 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 회차를 거듭할 수록 ‘마실 간다’는 느낌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철 과일이나 개별적으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준비하며 마음이 넉넉해지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야기를 듣다보면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실까?’ 싶어 경청하게 됩니다. 또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고 건너 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얼마나 큰 아픔이 있을까?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사연이 있으신 것 아닐까?’ 싶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경험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고집이 세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도 좁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인데, 요즘은 좋은이웃분들을 만나며 성장하고 나아간다는 느낌이라 감사한 마음입니다. 🌻

수성 좋은벗들, 좋은이웃과 만남의 날을 가졌습니다

송경희 수성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7월 22일 저녁 6시30분~9시
- 참석자 : 좋은이웃 10명, 활동가 5명

담당을 맡고 처음 참여한 프로그램이 '좋은이웃과 일상만남'이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프라인 만남을 못한 채 두 해가 지나갔다. 올해 여름, 반갑게도 거리두기 방침이 변경되어 무더위에 지친 좋은이웃분들을 초대하여 마음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도 나누고 싶었다. 법륜스님 금요 생방송 즉문즉설이 있는 날 만나면 즐거운 친구 만나 듯 밥 먹고 사는 이야기도 술술 나올 것 같았다.

좋은이웃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낯설었다. 시골에 사는 동서가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한 번도 좋은이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잘 살아보겠다며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찾아오다가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 남아 우리 곁을 찾아온 동서가 마냥 고마웠다. 힘들고 두렵고 외로웠을 사람인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며 함께 살아가자고 생각했다.

약속한 모임이 있는 날, 저녁으로 삼계탕을 먹고 즉문즉설을 듣기로 했는데 약속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무도 안 오셔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한

번도 빈 적이 없던 분들이라 어떻게 알아볼까 걱정이 되어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사람이 있어 우리 모임에 오신게 아닌가 물어보고 들어오시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오면 함께 들어가겠다고며 어색해 하셨다. 약속한 사람들이 모두 도착하고 나서야 서로 인사하며 시끌벅적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오셨다. 함께 삼계탕을 먹으며 그 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나누는 이런 저런 이야기로 식사 시간이 즐거웠다.

좋은이웃들은 북한 사투리가 아니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웃이었다. 밝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모임 장소였던 식당은 수성지회 회원님이 운영하는 곳이라 여유있게 장소를 이용할 수 있었다. 덕분에 식사 서빙도 하고 수박도 썰어 후식까지 나누었다. 수박을 먹다보니 자기 고향의 맛있는 과일 이야기가 나왔다. 북한에서 과수원 일을 하셨던 분은 ‘함경도 꿀배가 정말 달다’, ‘북송아는 여기 것과는 아예 맛이 다르다’며 자랑하셨다. 또 몇몇 분은 서로 고향이 같다며 반가워하셨다. 고향 자랑에, 동향의 반가움 속에 그리움이 진하게 묻어났다.

시간이 되어 빠르게 정리하고 TV앞에 둘러 앉아 함께 즉문즉설을 들었다. 신체장애를 가지고 사는데 힘들다는 질문, ‘로맨스 스캠’이라는 신종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나왔다. 사기를 당한 여성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는 여기저기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터져 나왔다. 어떤 곳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 얘기하는 분도 계셨다. 이 분들이 남한에 정착하고 직업을 구해서 현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까? 질문자들의 이야기에 더 깊이 공감하시고 걱정하시는 모습이 이해가 되었다.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식당 안으로 들어오실 때만 하더라도 쑥쓰러워하시던 분들이 즉문즉설이 끝나고 다

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함께하는 활동가 모두 뿌듯함을 느끼는 듯 했다.

오늘 행사를 정리하며 9월 추석에는 함께 식사하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약속했다. '온라인 통일축전 노래자랑 대표 뽑기'는 누가 봐도 오늘 제일 말쑥씨가 뛰어난 분위기를 이끈 최○○님이 되었다. 9월12일에 모여



노래 부르고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다. 최주영님은 “10월2일 통일축전은 가벼운 점심을 먹고 범물동 학원에서 함께 모여 줌으로 직접 통일축전에 함께 참여해요”라며 행사 공지를 했다. 정미영님은 작년 김장나눔에서 신기에 가까운 양념 만들기 동작을 보이며 활동가들을 놀라게 했었다. “올해 김장은 11월 말에 있으니 주변에 많이 홍보해서 함께 오시면 더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라며 깨알 홍보를 했다.

아쉬운 자리를 마무리하고 좋은이웃들과의 만남 정리 겸 하반기 활동 준비 모임을 했다. 돌아보면 오늘의 자리는 지난 2년 간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천재영님, 최주영님 두 분의 노고가 많았다. 좋은이웃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전화 드리고 집으로 추석 선물을 가져가 차담을 나누며 인사를 드렸다. 통일축전 영상도 보내드렸다. 스님과 좋은이웃 나들이에 몇 해째 참여한 분이 많았고 먼저 봉사한 활동가의 공덕인지 잘 받아주시고 반가워하셨다. 추석 선물 직접 배달을 시작으로 꾸준히 행복편지를 보내니 답장도 해주신다. 특



히 작년 좋은이웃과 함께 하는 김장 때는 그 전날부터 정성스럽게 양념준비하고 참가자를 위한 차량 봉사를 꼼꼼하게 계획했다. 함께 김장을 담고 자기소개와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함께하는 내내 가슴이, 마음이 따뜻하고 코끝이 찡한 시간이었다. 크리스마스 때는 직접 만든 생강청과 쿠키를 나누었고, 설날은 명절 선물로 활동가들과 함께 방문활동을 했다. 차 한잔하며 복한 명절에 만드는 수제 사탕도 맛보았다. 사람 시는 명절정이 느껴졌다. 행사하는 동안 혹여 마음 불편할까 말도 행동도 조심하게 되었고 몸도 고되었다. 그러나 함께 하니 혼자서는 엄두도 안나는 일이 저절로 되어진다. 좋은이웃들과 만나 본인 소개와 이북의 고향이야기를 할 때 조금은 상기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 편이 짠했었다. 올해 추석 행사를 알려드리니, 식혜 담고 전을 부쳐오겠다, 집에 노래방 앰프를 준비하겠다, 학원 근처 맛집을 예약하겠다 등 활동가의 자발적인 봉사 신청은 감동이었다. 뿌듯한 마음과 보람으로 어려운 일도 또 덤벼볼 마음이 난다.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되어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할 수 있기를 빌어본다. 함께 한 좋은이웃들과 좋은벗들 활동가,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

“

좋은이웃되기

- 가정방문
- 산모/영유아 지원
- 나들이

정착초기에는 첫 살림살이를 선물하고,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이웃으로서 정을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은행 등 공공기관 및 시설들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기쁜 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같이 나누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돕고자 출산 준비물과 분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백일과 돌에도 축하하며 좋은이웃의 가정이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정된 분위기라 좋습니다

박지혜 인천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5월 23일
- 지원대상 : 최○○님

지난 번 방문때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했는데 지금은 잘 적응하여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재미있게 잘 다니고 있지만, 직장 일로 늦게 데리러 가서 안쓰럽다고 합니다. 지난번 보다 집안도 잘 정리 되어 있고, 아이도 엄마도 긍정적이고 안정되어 보여서 보는 내내 다행스럽고 좋았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김미정 노원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5월 25일
- 대상 : 2가정(효○네, 성○ & 민○네)

효○이 엄마가 수술을 해서 걱정했는데 많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효○이 엄마는 항상 “그냥 와도 돼. 뭘 사 와. 얼굴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작은 과일 꾸러미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라 그런 말을 하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집에 가서 수다를 한참 떠는데 얼른 성○ & 민○네를 얼른 가보라고 합니다. 아이들 놀아주라며.

성○ & 민○네 가서 레고 놀이도 하고 총으로 병 맞추기 놀이도 했습니다. 함께 포도 먹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애인인데도 항상 밝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는 성○ & 민○ 엄마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 방문일 : 2022년 6월 9일
- 대상 : 2가정(지○네, 고○네)

방문하기 전 허은경님은 한참만의 방문이라 걱정했고, 저는 매달 방문하다가 두 달에 한 번 방문한다고 말하려니 걱정하는 마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집엔 엄마만 있었습니다. 지○이의 학교생활을 이야기하다가 아이들 양육방식에 대하여 자꾸 가르치려 드는 나를 보았습니다. 같이 방문한 허은경님은 자신의 경험까지 나누며 지○이 엄마와 얘기를 잘 하였습니다.

집안을 치우려고 분주한 고○ 엄마를 보며 안타까웠고 차분히 앉아서 얘기를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뭔가 주고 싶어서 음료수를 내놓았는데 고맙다며 맛있게 먹는 허은경님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음료수를 싫어한다며 사양하다가 조금 먹다 남겨 가지고 집에 와서는,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을’ 하고 후회했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나를 알아차리며 미안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대화

최옥분 부친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5월 31일
- 방문대상 : 3가정(전○○, 이○○, 류○○)



설명절 이후 만나지 못하다 쉬는 날이라고 갑자기 연락와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아 아파트 공원 벤치에서 만나 준비한 케익과 메론을 전해주었습니다. 찾아와주는 것 만도 고마운데, 뭘 사오냐며, 다음엔 절대 사오지 말라고 하는 마음씨가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세살 된 딸아이 안부를 물어보니 중국에 계신 할머니께 맡겼다고 합니다. 남편도 중국으로 돌아가고 지금은 혼자 안성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 있다고 합니다. 저녁에 회사로 갈거라 하여, 조심히 내려가라고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황○○택에서 이○○님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이○○

○님이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며 환한 미소로 반겨 주었습니다. 류○○님은 방문 당일 아침에 몸이 불편하다 하여 물품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문 앞에 걸어 둔 사진과 문자를 보냈더니 감사하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7월 28일
- 방문대상 : 고○○님

아이들이 아프고,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을 불편해하던 고○○님이 밖에서 만나자고 하여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어떤지 물어보니 요즘도 병원에 자주 다닌다고 하며, 아이들 데리고 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얘기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큰아이를 데리고 먼저 한국에 왔다가 작은아이 걱정에 다시 큰아이를 데리고 중국에 들어가 작은아이를 몰래 데리고 도망쳐 태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 두번이나 고된 여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탈북민 사건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열변을 토하시네요. 잠깐 앉아 있다가 나오려고 했으나 이야기를 중간에 끊을 수 없어 만남이 길어졌습니다.



살만한 세상입니다

김태윤 일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5월 27일 / 6월 23일
- 방문대상 : 2가정(김○○님, 백○○님) / 백○○님

김○○님은 항상 바쁘셔서 만남의 시간을 잡기도 조금은 어렵지만 항상 밝은 얼굴로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하나센타에서 즐겁게 놀러 다녀오셨다며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살피주는걸 보니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백○○님은 저번달보다 얼굴이 밝고 좋아 보여서 안부를 물으니 디스크도 물리치료 받고 좋아지고 먹는 것도 잘 드신다는 말씀에 다행스러운 마음이었

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조용하신 분이라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가벼운 산책도 권하면서 즐겁게 얘기 나누고 왔습



니다. 혼자라 조금 걱정되는 마음을 남기고 안부인사 나누었습니다. 잠시지만 서로의 안부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백○○님을 만나는 날 비가 엄청 쏟아져 신발도 젖고 땀범벅이었지만 약속을 미룰 수 없어 방문을 했는데

비오는 날 힘들겠다며 오히려 미안해하시니 제가 더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부터 약속 잡을 때 날씨도 참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온 뒤부터 계속 지원해주고 고맙다고 말씀주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없이 잘 지내시는 모습보고 다음달에 또 뵙기를 약속하고 돌아오는 마음이 가볍고 좋았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7월 26일
- 방문대상 : 2가정(김○○님, 백○○님)

김○○님은 개인적으로 바쁘셔서 약속잡기가 힘든데, 다행히 방문약속을 잡았습니다. 외

모에 관심이 많아 눈썹 문신도 하고 염색도 했다며 좋아하시는 걸 보니 이곳에 와 자유롭게 편하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물품 지원하나 싶은 맘에 약간의 불편함도 올

라왔지만 지난번 교육받으며 ‘그냥 이웃처럼, 잘살고 못사는 것이 아닌 이웃과 정나누기’라는 관점을 다시 잡으니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통일축전이 있으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에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스크가 심해지신 백○○님은 물리치료와 주사를 맞고 치료 중이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고 하셔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기에 운동방법도 알려드리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다음달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안부인사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밝아진 분위기에 마음도 가벼워

김혜원 일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6월 22일 / 7월 25일
- 방문대상 : 2가정(민○네, 현○네)

민○이 엄마는 일을 다니다가 힘들어 쉬고 있는데, 다리를 다쳐서 침을 맞고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현○이 엄마는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밝아지고 편안해 보여서 이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현○이도 발레학원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아주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현○이네 가정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방문을 마치고 나오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 셋이 방학이어서 모두 집에 있는데 엄마가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세아이와 전쟁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집 주변에 돌봄교실이 있어 영어 수학 공부도 잘 지도받고, 지원카드로 학원비도 일부 지원받아 태권도와 발레도 보내고 있는데 지원되는 카드는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소멸되는 카드라서 사용하다보니 세 아이 학원비가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는 이야기를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으며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현○이네 방문중 오늘이 가장 좋은 시간으로 느껴져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

로 방문을 마쳤습니다. 이어 민○이네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학원
가고 생과일 주스를 내 주어서 시원하게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예전보
다 민○이 엄마가 심리적으로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경제적인 것 보다는
편안한 마음이 되어야 살기가 힘들지 않구나 느꼈고, 좀더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방문을 마쳤습니다.

혼자 견디느라 힘드시죠

김선희 중울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6월 3일
- 방문대상 : 김○○님

입원 및 수술 후 퇴원하여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다고 하여 병문안을 갔습니다. 집근처 카페에 있다고 하여 그곳으로 가 얘기 나눈 후 준비한 롤케익과 음료를 전달하였습니다. 가족도 없이 수술 후 혼자 견디는 상황이 마음이 아팠지만, 그나마 지인과 식사 후 차도 마시며 얘기나누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중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섭 화성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6월 11일 / 6월 25일
- 방문대상 : 김○○님 / 전○○님

김○○님을 설 명절에 못 뵈어서 궁금한 마음이었는데 아침 시간에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밝은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형제들도 함께 하시어 다복한 느낌이 들어 마음 가볍습니다. 초등학교 쌍둥이 자매의 수줍어 하는 모습이 미소 짓게 합니다. 마중도 나와주시고 부부가 배웅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에너지 뽀뽀 전○○님. 방문 전 마음도 설레고 방문 후 기쁨을 나눠주시는 우리 이웃입니다. 간호사 일로 교대 근무하시고 휴일엔 알바까지 하신다는 야무진 전○○님의 간단한 한끼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끼니 거르지 마시라는 말씀에 감동이고 행복했다는 후기도 보내 주셨네요 ^^ 잊지 않고 찾아주는 좋은벗들에 감사하다는 말씀에 더 감동스럽습니다. 적응력 짱~ 에너지 짱~ 우리 이웃을 응원합니다~ 김장 일정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말씀에 마음이 벌써 배추 받으로 달려갑니다~



- 방문일 : 2022년 7월 9일 / 7월 15일
- 방문대상 : 송○○님 / 최○○님



식당을 운영하시는 송○○님. 점심 시간인데도 주말이라 그런지 한가한 덕분에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벌써 중1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살이 많이 쪼서 걱정이시라네요. 학원 보낼 형편이 안되지만 아이 공부는 많이 신경쓰인다 합니다. ‘예’보다는 ‘싫어’라는 답이 더 많은 걸 보니 중 2병이 아닌지 걱정인가 봅니다. 중국인 남편, 아이와 남한 정착기 들으며 잔~한 마음도 들고, 열혈 워킹맘 송○○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 나누었습니다. 친구도 없는데 매번 잊지 않고 찾아주는 좋은벗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10월 2일 통일축전 장기자랑엔 봉사자들이 백댄서로 참여하겠다 약속하고 왔습니다~

러시아 별목공으로 오랜시간 러시아에서 생활하셨던 최○○님. 좋은벗들 회원 소개로 방문했습니다.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던 분이셔서 그런지 재밌게 말씀도 잘 하시고, 좋은벗들 방문에 기쁘다고 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신지 5년 되셨다고 하십니다. 오랜 러시아에서의 생활과 남한에서의 생활을 유쾌하게 전해주셔서 방문한 우리들이 오히려 힘을 얻은 듯 합니다. 마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이번 통일축전에서 실력 발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커

피 회사에서 일하는데 저희 맞이하신다고 커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마음 감사히 받았고, 다음에도 가볍게 뵙겠습니다.



새로운 인연 감사합니다

노정숙 화성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7월 24일 / 7월 25일
- 방문대상 : 이○○님 / 2가정(이○○님, 이○○님)



중은벗들 회원의 소개로 이○○님을 뵈고 왔습니다. 남한에 정착하신지 16년 되셨습니다. 홀로 오신데다가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으셔서 그런지 외로움이 깊으신 듯 보였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더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들어 벗이 되어줄 곳도 여러 곳 찾아보신 끝에 좋은벗들과 인연이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좋은벗들의 활동과 활동의 취지를 들으시고 흔쾌히 이웃이 되어보겠다고 하시네요^^ 이번 추석방문과 통일축전도 함께 하고, 음식도 잘 하신다니 김장 무채 솜씨도 기대가 됩니다~

부산에서 화성시 향남으로 이사 온 자매분 두 가정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언니는 한국에 온지 10년이 넘었고 동생은 2년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좋은벗들과 인연이 좋아서 계속 이어가고 싶었다는 말씀에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작년에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셨다고 해서 올해도 할 계획이라고 하니 두분 모두 반가워하셨습니다. 일상 방문도 환영하신다고 하여 시간 맞추어 종종 뵈기로 하고 방문을 마쳤습니다.

나들이 기념품 배달 완료

박용숙 광명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6월 22일
- 방문대상 : 3가정(무○네, 용○네, 김○○님)

나들이 기념 타올과 김세트, 나비장터에서 구매한 것들, 다문화센터에 봉사 간 김에 이것저것 챙겨서 각 가정에 배달했습니다.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소통이 잘 안되어 여러 번 통화 끝에 전달하였습니다. 숙제를 마친 마음입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기를

이정원 광명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5월 7일, 6월 30일 / 7월 1일 / 7월 16일
- 방문대상 : 전○○님 / 2가정(백○○님, 최○○님) / 김○○님

좋은벗들 전○○님을 뵙고 왔습니다. 교통사고 장애로 다리가 불편해서 거의 집에 계시지만, 몸이 안좋을 때가 많아 방문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번에 과일을 사서 갔는데 다행히 바나나를 잘 드셔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사고로 장애를 입은 하체 부근에 늘 통증이 있다는 말씀에, JTS다문화센터 무료진료를 한번 보러 오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자녀 이야기, 북한에서 지내셨던 이야기 등을 나누다보니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오늘은 통증이 심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백○○님과 같이 점심식사 했습니다. 전에 중고 아이물품을 가져다 드렸을 때 점심을 사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엔 사드리려고 갔습니다. 늘 아가들과 북작북작 만나다가 들어서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아이들도 점점 크고 근방에 내집하





나 마련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네요. 관련해서 아는 것이 없어 별 도움은 못되어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잘 살아가보려 하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좋은 이웃 나들이도 꼭 참석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다음에는 수연이와 우진이도 같이 만나고 싶은 마음 들었습니다. 백○ ○님은 늘 본인사진 찍는걸 안좋아 하셔서 식사 맛있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최○○님과 딸 민주를 만나고 왔습니다. 뭘 좋아하실 지 몰라 그냥 수박을 사갔는데 민주도 좋아한다며 반겨 주셔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서로 많이 익숙해져서 오고 감도 자연스럽게 대화도 편안합니다. 10월쯤에는 정말 오랜만에 남편을 보러 중국에 잠시 다녀올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부디 코로나가 다시 악화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딸아이와 건강히 잘 지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김○○님을 오랜만에 뵙고왔습니다. 이래저래 서로 바빠서 3달만이라 무척 반가웠습니다. 천안에 계신 형부가 수술을 해서 급히 천안에 가게 되었다며 길게 이야기 나누지 못해 미안해하셨습니다. 요즘 마스크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며, 마스크를 봉지에 잔뜩 싸주셨습니다. 언젠가부터 가면 뭘 자꾸 챙겨주려고 하시는데 마음이 고맙습니다. 마침 함께 계시던 지인분께 사진을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이야기 나누자고 웃으며 인사나눴습니다.



이웃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김명신 광명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6월 20일 / 6월 30일
- 방문대상 : 채○○님 / 박○○님



나 들이에 참여를 못해 아쉬워하는 채○○님과 갯골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조카가 집에 다녀가서 피곤하다고 하여 집으로 방문 드렸습니다. 과일을 좋아하셔서 과일 3종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취향도 알고 이웃이 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북에 두고 온 딸을 데려오고 싶으셔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는 중인데, 5년은 모아야 할 것 같다는 말에는 가슴이 뭉클하고 먹먹합니다. 제 표현력으로는 채○○님의 심정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냥 이웃이 아니라 좋은이웃이 되어주

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박○○님댁 아기가 장염으로 입원을 해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평소에 순하고 점잖은 아기가 몸이 힘든지 보채고 칭얼댑니다. 아기도 고생이지만 옆에서 간호하는 박○○님이 힘드실 거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한 물티슈와 전복죽을 준비해 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택시로 퇴원하시지 말고 연락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급한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연락을 안하셔서 좀더 마음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부모님이 방문하셔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어디든 찾아가 뵙겠습니다

황재영 기흥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8월 1일
- 방문대상 : 2가정(이○○님 / 김○○님)

서빙일을 하시는 이○○님의 편의를 위해 브레이크 타임을 이용해 직장 근처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늘 열심히 사시는 이○○님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고 계셨지만 3년전에 북한에서 여기로 데려온 큰딸의 연락두절과 소통단절로 인해 많이 마음 아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여기에서 굶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으로나마 위안 삼으려 한다는 말에 저희 봉사자들의 마음도 숙연해졌습니다. 다행히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작은딸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김○○님이 일이 끝나는 오후 5시반에 집 앞 벤치에서 만나 간단히 안부인사 나누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고 남편도 같이 일하는 사람을 잘 구하지는 못하지만 그럭저럭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을 도와 일을 할 때 보다는 서로 각자 일을 할 때가 김○○님의 표정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



즐겁게 놀았습니다

조경옥 김해 좋은벗들

- 일시 : 2022년 5월 28일 오전9시30분~12시
- 장소 : 양산 춘추공원 일대(구름다리, 윤현진비,이원수비,충렬사,현충탑)
- 참석 : 좋은이웃 9명, 봉사자 6명, 해설사 1명

코로나로 움츠려져 있던 마음이 이렇게라도 만나니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토요일이라 아이들 일정이 있어서 안올까 했는데 맛있는 간식과 재미있는 놀이로 아이들이 좋아해 참석하길 잘했다고,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 기다리는 마음이었고 준비해 주신 것에 고마운 마음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향의 봄’작가 이원수비 앞에서 아랫동네 윗동네 하나되어 합창하니 가슴 뭉클했습니다.



깡충깡충 뛰고

유현주 인양 좋은벗들

- 일시 : 2022년 5월 28일 오전10시~오후3시
- 장소 : 군포 초막골 자연생태공원
- 참석 : 좋은이웃 16명(어린이 8명), 봉사자 20명

저마다 다른 색을 지닌 꽃들이 만발하고 멥꽂이와 도롱뇽,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말 그대로의 자연생태공원 초막골에서 좋은이웃들과의 나들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차례나 가봤던 곳이라 어떨까 하였지만, 긴 휴식 후의 만남은 우리가 함께 만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즐거운 나들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바쁜 일정에 하루 짬을 내어 음식을 준비하고 머리맞대어 프로그램



을 짚습니다. 그들이 행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잘 쓰이면 좋겠다며 선물 기부가 쏟아집니다. 좋은이웃 한 분 한 분께 전화를 돌리고 그들이 계획을 말씀드리니 좋아하십니다. 토요일 근무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큼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못해 겹해서 즐겁게 놀아보자는 생각으로 짠 프로그램. 예쁜 꽃돼지님 진행으로 투호 던지기, 판 뒤집기, 서로의 개인기를 뽑내는 장기자랑, 구슬깨기, 편백나무 향주머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바탕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간호사님이 심리상담을 겸한 건강 체크도 해주었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쌈채소를 세 보따리나 가져오셔서 준비한 음식이 더욱 풍족합니다. 톱니바퀴 어느 하나 빠지고 도드라짐 없이 잘 맞아 돌아가니 우리가 진정 모자이크구나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워 쩡췌 췌 뛰고 그걸 보는 어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 즐겁고 유익한 날들이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화창한 날

민재윤 부친 좋은벗들

- 일시 : 2022년 6월 1일 오전10시~오후2시
- 장소 : 부천 자연생태공원(식물원, 박물관, 수목원 관람)
- 참석 : 좋은이웃 13명, 봉사자 13명

오길 잘했다며 너무 좋았다는 류○○님.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텐데 고맙다 인사하시는 이○○님. 아이 데리고 한국 와서 처음 나들이 나왔다면 눈시울 붉히던 ○○이 어머니 덕분에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장미꽃도 화사하게 반겨주는 듯 즐거웠습니다. 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기뻛고, 이○○님도 정말 잘 부르시네요 ~ 다만 아쉬웠던 것은 민원 때문에 다른 분들의 장기를 볼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준비하신 법사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좋은이웃 분들도 좋아하셔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화창한 날씨만큼 즐겁고 유익하고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한 회원님들 반가웠고 감사하고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즐겁게 큰 소리로 게임에 참여하는 좋은이웃분들 모습을 보니 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봉사자님들 감사합니다.

건강문제로 못 온다고 하셨던 류○○님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오늘 참가한 3가정 모두 좋은벗들의 정성스러움이 느껴져 감사하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주시니 좋은 시간, 뜻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함께 하니 더 좋았습니다.

장소 맡아 놓느라 함께 관람도 못했고 식사도 같이 못했지만 잘 쓰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나들이 준비해 주신 모든 봉사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안산, 시흥, 광명 3개 지역이 한자리에

이정원 광명 좋은벗들

- 일시 : 2022년 6월 4일 오전9시40분~오후1시30분
- 참석 : 좋은이웃 18명, 봉사자 13명



맛

깔나는 사회와 서로를 알아가

는 즐거운 게임 속에서 참 소중한 시간 보냈습니다.

어울리는 것이 쑥쓰러워서 멀쩡이 떨어져 구경하던 좋은이웃분도
계셨지만 그런 중에도 참석을 결심해 주심이 감사했습니다.

나비장터를 통해서 만나게 된 부친에 거주하는 좋은이웃 두 분도 갑자기 함께
하게 되어, 그 인연이 재미있고 고마웠습니다. 농침과 부족함도 있었지만 좋은

경험이 되었고, 봉사자 한분 한분 정성으로 좋은

이웃분을 대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종

은이웃분이 노래자랑하고 받은 상품

계량한복을 집에서 입고 감사인사

와 함께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

셨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컸을까

산 모
영유아
지 원

최옥분 부친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5월 31일
- 방문대상 : 황○○님

무럭무럭 자라는 아기가 얼마나 더 컸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황○○님댁을 방문했습니다. 활동이 활발해진 아기가 뒤집기를 하고 엎드려 잘 놀고 있었습니다. 낮을 가리지 않고 생긱생긱 웃으며 웅얼이를 하며 재롱을 부리네요. 지난 번 방문 때 접는 유모차가 없어 불편하다는 황○○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김영진님이 잘 세탁된 중고 유모차를 구입해서 전달했습니다. 아기를 태워보고 사용법을 익히는 황○○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에 잘 자렴

산 모
영유아
지 원

민재윤 부친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6월 23일
- 방문대상 : 김○○님



아이와 함께 친구분 결혼식에 다녀와 김○○님이 굉장히 피곤해했습니다. 집이 1층이라 환기가 잘 안되고 습도가 높아 어려움이 많다고 하네요. 아이가 백일이 지나 유모차로 낮에는 잠깐 산책 다니고 있고, 아이가 밤에 잘 안 자서 피곤하다고 하세요. 무더위와 집안 환경 관련 이야기를 들으니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6월 23일
- 방문대상 : 임○○님



두 번째 산모지원을 나갔습니다. 아가는 태어난 지 두달이 되었는데 아프지 않고 무럭무럭 크는 모습이 사랑스러웠고 누나와 똑답아 있었습니다. 산

후도우미 도움이 끝난 지 이틀정도 되어서 임〇〇님 혼자 아기를 보고 있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웃 친구들과 아기를 데리고 마실도 간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큰딸은 학교에 등교하여 볼 수 없었는데, 동생에게 시샘도 한다며 신경써야겠다고 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 모습이 다행이었고 아기가 잘려 하기에 다음을 기약하며 방문을 마쳤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6월 23일
- 방문대상 : 임〇〇님

쌀과 찹쌀을 사골국에 브로콜리 등을 넣어서 이유식을 끓여 주면 잘 먹는다고 합니다. 발육이 좋아 앉아서 놀기도 하고 눈 맞추며 잇몸을 드러내는 환한 웃음은 어른들의 마음을 다 녹게 합니다.

내일이 기숙학교에 있는 큰아들 생일이어서 가서 맛있는 것을 사주고 온다고 합니다. 미리 알려 주었으면 생일 선물을 마련했을텐데 아쉬워하니 괜찮다고 하며 지금 분유 지원도 무척 고맙게 받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엄마의 정서가 안정되고 긍정적이어서 아이도 순둥순둥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6월 23일
- 방문대상 : 류○○님 / 황○○님

류○○님이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몸이 아파 일어나기조차 어려운 날이 있어 몸무게가 5킬로그램 빠져 수척해 보였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려 취미로 그림꾸미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사위와 이혼한 딸, 그 사이에서 눈치만 발달한 손녀, 북한에 있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마음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황○○님댁을 방문했습니다. 준○이는 웅아리로, 준○이엄마는 밝은 미소로 맞아 주었습니다. 서울 교회에서 위탁교육받는 아들이 방학을 맞아 함께 약 2주간 생활한다고 합니다. 주말 예배, 성경공부모임, 가족캠프 등 교회활동을 하며 육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 준영이네를 응원합니다.



이○○님은 자매처럼 지내는 지인의 간병을 하러 가서 8월에 오신다고 해서 이웃인 황○○님께 지원 물품을 전해 드린다고 했더니 고맙다고 합니다. 나름 어려움이 있지만 적응하며 살려는 의지가 보여 감사한 마음입니다.

좋은 이웃 되기

|

산 모
영유아
지 원

백일 축하해

서태원 광명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5월 29일
- 방문대상 : 임○○, 이○○ 부부

부부에게 찾아온 첫번째 아이,
주희가 백일이 되었습니다. 예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네요. 주
○야, 백일 축하해!



엄마의 걱정

산 모
영유아
지 원

이정원 광명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5월 26일
- 방문대상 : 송○○님



방문할 때마다 쑥쑥 크는 민○이가 반갑습니다. 봉사자들이 보기에는 잘 크고 있는듯 보이지만 송○○님은 요즘 민○이가 잘 먹지 않아서 걱정이신 듯했어요. 짜증도 부리고 엄마 찾는 걸 보니 이빨이 날 때가 싶었습니다. 아빠가 만들어준 멋진 종이집과 잘 이겨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6월 23일
- 방문대상 : 김○○님 / 이○○님



코로나로 뱃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보니 더 반가웠습니다. 그 사이 유○이는 많이 커서 앉기도 합니다. 김○○님도 코로나를 두번이나 겪고 고생하셨는데 완전 회복해서 좋아 보였습니다. 이웃 지인이 계셨는데 함께 계시는 모습도 좋아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

며 열심히 자기개발을 하는 김○○님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6월 마지막 날 비가 세차게 내려 아침에 걱정이 앞섰는데, 다행히 출발할 때는 비가 그쳐 잘 다녀왔습니다. 한 달 만에 이○○님 댁을 찾았는데, 막내 서○○이가 낫을 가려 요리하는 엄마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고 있어 거리를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원님이 딸아이도 그 시기에 그랬다며 옛날 생각에 함께 웃었습니다. 남편분이 허리가 안좋아 병원에 다녀오시고, 곧 손님도 올 분위기라 같이 식사하고 가라는 걸 사양하고 총총히 나왔습니다. 이○○님이 아직도 조금은 마음 터놓고 얘기를 많이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차츰 가까워지리라 기대해봅니다.

- 방문일 : 2022년 7월 12일 / 7월 21일
- 방문대상 : 김○○님 / 이○○님

김○○님 첫만남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보다 인상도 좋아지시고 아기도 더 아프지 않고 건강히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 참 고마웠습니다. 분유 한통이라도 더 챙겨주려 하시는 김명신님께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한달만에 아기가 부쩍 커서 앉아 있는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는 엄마를 알아보는지 건강하게 키워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님도 마음이 편안해 보여



서 보는 내 마음도 편안하게 보고 와서 좋았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함께 해 준 이정원님께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밤사이 내린 비가 다행히 오전에 그쳐 이○○님 댁에 잘 다녀왔습니다. 탈북해서 정착하기까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상상 이상의 힘든 여정을 견디며 여기까지 와서 정착하는데 도대체 저 힘은 어디서 났을까? 저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걸까? 순간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간절하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엄마를 원망했는데 본인이 자식을 낳아 키워 보니 그럴 수 밖에 없었구나 이해하게 됐다며 이 좋은 곳에 함께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아쉬워하는 걸 보니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매달 분유도 지원해준다면 감사해했습니다. 좋은이웃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벌써 웅알이도 하고

정정숙 중울산 좋은벗들

- 방문일 : 2022년 6월 11일
- 방문대상 : 박○○님

박○○님 둘째 예○이 백일 지원물품으로 분유 4통 전달했습니다. 둘째라 필요한 물품이 없다길래 고민하다가 모유가 모자란것 같다고 해서 분유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웅알이도 하고 잘 웃는 예○이를 보니 마음에 시름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토피가 심해서 고생하는 걸 보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잔다니 다행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을 기약하고 왔습니다.



- 방문일 : 2022년 7월 17일
- 방문대상 : 문○○님

문○○님 둘째 아기 출산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4개월 큰 아들 찬○이, 태어난 지 31일 된 작은 아들 찬×를 돌보느라 산후우울증이 왔다는 문○○님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친정에서 육아를 하게 되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이는 너무 순하고 귀엽고 작은 아이 찬×는 그야말로 천사 같이 예뻐했습니다. 엄마가 얼른 회복되어서 두 아이랑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





제 19차 온라인 통일 축전



22. 10. 2 (일) 오후 2시 ~ 4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고향 생각날 때, 함께 어울려요



“

기획 2

특별한 여행

행사에 참여한 25명의 봉사자가 자기의 역할을 맡아 사진을 찍고, 물품을 관리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사전준비를 하고 게임을 짜고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모자이크 붓다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또한 나들이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적극적으로 함께 준비해 준 인천지회 회원들이 있어 가능했구나 알아지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

추억을 함께 하는 우리는 친구

구혜영 인천 좋은벗들

2022년 5월 29일 드디어 고려인들과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고려인들이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니 나들이를 가고 싶다 하셔서 역사 유적지와 바다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강화도를 다녀오기로 했다.

강화 나들이는 강화역사박물관-광성보-동막해수욕장으로 일정을 짜고, 역사 해설은 좋은벗들 사무국장 이승용님이, 공동체놀이와 장기자랑은 공



동체놀이팀을 꾸려서 준비를 했다. 나는 공동체놀이팀이라서 몇 번의 회의를 통해 놀이를 기획하고, 시연하며 준비를 했다.



인천 함박마을에서 38명의 고려인들과 7명의 봉사자가 탄 45인승 버스와 장애인 가족을 태운 승용차, 봉사자들이 탄 승용차 2대가 출발하고, 인천서구와 강화 그리고 서울 정토사

회문화회관에서 출발한 봉사자들이 강화역사박물관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다.

어제 싸둔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두고 강화역사박물관에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강화역사박물관 입구로 향해오는 아직은 약간 어색하고 쑥쓰러워하는 분들을 향해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를 외치면서 환영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현수막을 흔들었다.

역사박물관과 광성보에서 설명을 잘 전달하기 위해 송수신기를 준비하고 이용방법을 설명했지만, 한국말이 대부분 서투르기도 하고 수신기 작동이 서툴러서 계속되는 “삐~” 소리를 잡지 못해 그냥 육성으로 안내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좋은벚들 국장이신 이승용님이 한국말 안내를 하시면, 차인호 원고려인문화원 고려인추 원장님이 러시아말로 통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역사에 대해 지루해하면 어쩌나 했던 우려와 달리 대부분 우리의 역사에 대해 귀담아들으려 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싶어하는 모습에 놀랐다. 자연사박물관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노랑, 빨강, 초록, 파

랑 모듬으로 나누어서 가끔 만나 얼굴을 익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을 맞춰 걷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조금씩 풀어가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도 노랑모듬의 안뜰과 그의 할머니와 함께 걸으며 아이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5살 안뜰은 수줍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모두 알아듣고는 있었다.

차를 움직여 광성보를 향하니 역사와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에 마음을 모두 빼앗겼다. 쌍둥이 유모차를 밀어주고, 어린아이에게 목마를 태워주기도 하고, 자매끼리 참여한 아이들과 발을 맞추어 걷기도 했다. 즐거울 준비가 되어 있던 우리들은 고려인, 봉사자 구분할 것 없이 소풍 나온 아이들처럼 떠들고 웃으며 오랜만의 바깥 나들이를 만끽했다. 광성보, 용두돈대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장씩 사진을 찍고 동막해수욕장에 도착하여 점심으로 칼국수와 과전을 먹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칼국수를 잘 먹지 않았다. 아직 아이들은 빵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보아 칼국수가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자유시간을 갖기로 하고, 이 시간을 이용해 가족사진을 촬영했다. 액자에 넣어 다음 방문봉사 때 기념품으로 선물할 예정인데, 사진이 추억을 살리는 선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공동체놀이와 장기자랑 시작을 알리는 남상원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리고 그 소리가 이끄는 대로 모래사장에 모여 우리는 함께 놀았다. OX퀴즈로 시작한 놀이에 파라솔 밑에서 구경꾼처럼 있던 고려인들이 하나 둘 나서기 시작하더니 인천지회 회원들이 모아준 90여 개의 선물 보따리가 풀리니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듯했다. 두 번째는 돛자리놀이였다. 돛자리를 접어서 그 위에 더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놀이였는데 업어주고 잡아주면서 더 웃음꽃이 피었다. 안뜰도 무릎이 아픈 할머니 대신 내 손을 잡고 게임에 참여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려고 서로를 챙기며 나이를 잊고 어린아이들로 돌아갔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원을 동그랗게 만들고 탕탕볼을 굴려 모래사장을 크게 한바퀴를 돌아오는 경기를 할 때에는 이미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그냥 운동회를 하는 친구가 되었다. 안뜰도 이 게임이 끝나고 내 손을 잡고 신이 나서 빙글빙글 돌았다.

대망의 장기자랑으로 이어지고 노래와 춤으로 어우러져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은 ‘흥’ 많은 한민족임을 서로가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고,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짙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아침만 해도 낯설었던 우리가,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대화가 서툴렀던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 걱정을 하던 우리가, 봉사가 부담이던 우리가 어느덧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잊고 아이같은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가 되니 감동이 밀려왔다.

돌아가는 길 안뜰이 나를 보고 웃었다. 너무 기뻐다. 우리는 이제 친구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말하고 싶었다.

행사에 참여한 25명의 봉사자가 자기의 역할을 맡아 사진을 찍고, 물품을 관리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사전준비를 하고 게임을 짜고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모자이크 붓다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또한 나들이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적극적으로 함께 준비해 준 인천지회 회원들이 있어 가능했구나 알아지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이번주 식료품지원 꾸러미를 들고 안뜰집에 간 봉사자 방문보고에 '안뜰은 쑥스러워서 장롱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글을 읽으며 예전과는 다르게 웃을 수 있다. 친구는 사이사이를 이해해가는 사이. 이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되어가고 있다.☺



“

기획 3

역사기행

이번 기행은 백성을 가장 사랑했던 이순신 장군의 애민정신을 다시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가장 위대했지만 가장 낮은 곳을 바라봤던 시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벅차올라 마음이 설레인다.

”

시대의 영웅 이순신 통영에서 만나다

백창열 경남 좋은벗들

6월 19일 일요일, 시대의 영웅 이순신 통영에서 만나다! 라는 주제로 한산도가 보이는 아름다운 통영에서 충무공 이순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보았다. 경남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거제, 창원, 김해지회 회원 50여명이 오전 9시에 통영여객선터미널에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승선 시간을 기다리며 깨알같이 행복학교 홍보를 하는 회원분들 덕분에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



드디어 역사기행의 첫 여정인 한산도로 이동하기 위해 배를 탔다. 배위에서 저 멀리 한산도가 보이고 지나온 곳인 통영항을 바라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 30여분을 배를 타고 가는데 다도해라 불릴 만큼 바다와 섬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낸다.

한산도에 도착해 좋은벗들 이승용 사무국장님의 한산도에 대한 안내를 바다를 바라보며 들으니 마치 400여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임진왜란 당시를 느낄 수 있었다. 한산도에는 이순신장군이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후 지은 사당인 제승당이 있는데 나가는 배시간이 있어 제승당을 가기 위해 서둘러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중에도 안내자의 안내를 들을 수 있어 감동이었다. 제승당을 도착해 제일 먼저 이순신 장군을 모신 사당에서 다함께 묵념을 하였다. 제승당은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을 지휘하던 곳으로 내부에는 충무공의 전적을 그린 5폭의 해전도와 현자총통, 지자총동, 거북선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다.

제승당과 함께 충무사를 이루는 한산정은 이순신장군이 활을 쏘던 곳으로 사정과 표적과의 거리가 145m나 되었고 표적사이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실제 배 위에서 활을 쏘는 것과 같은 환경에서 활 연습을 했

다는 안내자의 말을 들으며 역시 이순신장군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정에서 관리가 내려오면 한산정으로 먼저 와서 관리가 활을 잘 쏘면 대접을 잘 해



줬다는 이순신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 함께 크게 웃었다.

배를 타고 통영항으로 돌아와 이순신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각자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통영앞 바다를 바라보며 안내자의 안내가 이어졌다.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이순신 장군을 모신 사당인 착량묘로 이동했다. 통영에 있는 충렬사를 이전에 가봤을때는 규모도 크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착량묘를 보니 규모도 작고 충렬사보다 초라해 보였다. 건물 마루에 앉아 착량묘 명칭에 대한 유래와 이순신장군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씀 중에 ‘만약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기일에 제삿밥을 먹으러 온다면 어느 곳으로 올까요?’라는 질문에 충렬사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이순신을 기리는 사당은 국가에서 세운 곳이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곳 착량묘는 이순신장군 전사 후 백성들이 세운 사당이다. ‘백성을 생각



하고 사랑했던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 와서 제삿밥을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착량묘 일정을 마치고 해저터널을 탐방했다.

해저터널은 1932년에 건립한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터널이었는데 6월의 더운 날씨에도 터널 안은 시원했다.

터널을 만들게 된 배경과 과정을 들으며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일정인 조선시대 삼도수군 통제사영으로 사용된 세병관으로 이동했다. 세병관은 현존하는 목조 고건축 중에 경복궁 경회루나 여수 진남관 등과 함께 평면 면적이 큰 건물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인지 마루에 앉아 통영 시내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세병관 안쪽에는 많은 현판들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통제사를 지낸 분들의 이름과 휘하 막료장수와 지휘관도 기록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안내자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지금 통영에 있는 거북선이 원래는 서울 한강에 있는 것이었는데 이 거북선이 통영으로 이동하게 된 배경과 과정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 보니 어느덧 마치는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가 이



순신 장군을 거론할 때 나라에 대한 ‘충’을 으뜸으로 강조해서 충렬사를 짓고 왜군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이순신이라는 부분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역사기행에 참여해서 안내를 들으며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이 곧 조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을까 싶다.



전투 후 적군이 살아 돌아가면 돌아가는 길에 다시 백성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기에 ‘한 명의 적도 살아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건 아닐까란 생각을 했다. 이번 기행은 백성을 가장 사랑했던 이순신 장군의 애민정신을 다시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가장 위대했지만 가장 낮은 곳을 바라봤던 시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벅차올라 마음이 설레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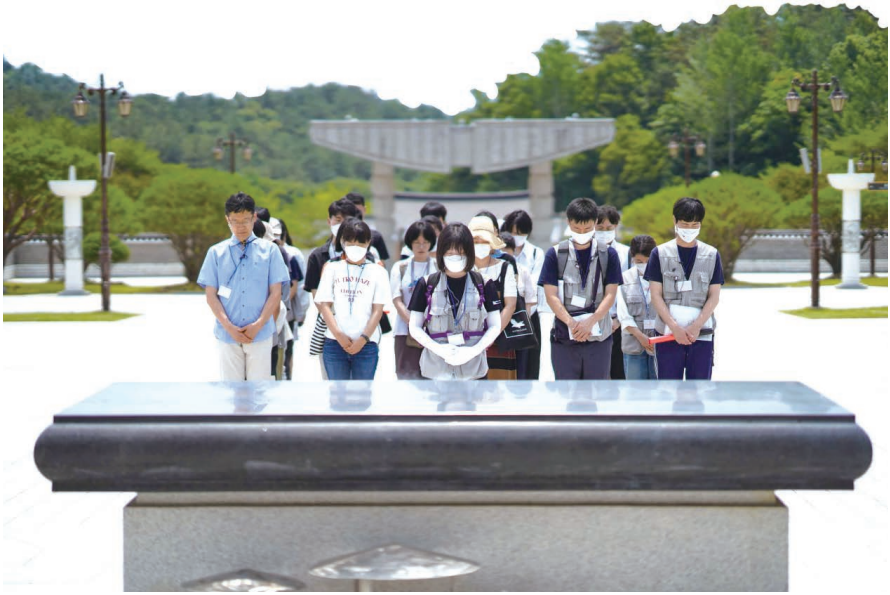
기행을 준비해주신 거제지회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10월에 있을 진주 역사기행에서 다시 만나길 바란다.☀

광주, 5.18 그 아픈 역사

전주희

살아오면서 누구나 인생의 목표품 약 50명의 청년들은 5.18 광주 역사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광주는 약 40여년 전, 한창 꽃이 만개하는 5월의 봄에 시민들이 신군부의 만행에 맞서고 자유를 얻고자 뜨거운 피로 붉게 물들인 터입니다. 그 장소에는 대학생,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 여고생, 어린이 등 우





리 주변의 친근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항쟁했던 장소를 직접 방문하니 그 모든 인연으로 지금의 자유가 존재함이 생생하게 느껴져 더욱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정토회 청년들의 역사기행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상기하기 위해서가 아닌데요, ‘과거’ 역사를 공부하고, ‘현재’ 우리의 뿌리를 파악하고, ‘미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 정토회 역사기행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발자취를 탐구하다 보면, 모든 행위가 연기되어 있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80년대 당시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독재정권 타파, 민주주의 쟁취를 외치며 사회운동을 한 이유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주를 지킨 최후의 시민군 윤상원 열사는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향한 항쟁과, 그 항쟁을 알린 한 또 다른 항쟁으로, 오늘날 우리의 자유가 존재함을 새깁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그 정신을 ‘바르게’ 이어주기 위해, 청년들이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사적지 소개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

어느덧 지구촌 대중문화에 한류가 대세가 되었다. K-팝을 비롯해 드라마, 영화, 한식, 한복과 심지어 웹툰까지 여러 나라에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전쟁 후 빈곤과 가난, 독재의 억압을 모두 겪었던 기성세대는 격세지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 같다.

그러나 대중문화란 유행에 민감하고 늘 변화하기 마련이다. 지구인이 충분히 공감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품지 않는

구 전남도청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기록관의 유물

다면, 비록 한류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분위기가 식고 대중들의 외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가지는 힘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저항의 가치관이 곳곳에 녹아있는 요인도 크다.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희망을 항상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어느새 세계인들에게 자유와 인권, 평화의 상징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한강의 기적이 한국이라는 세계 최빈국을 단번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면, 80년 광주의 민주정신이 자유와 인권을 대표하는 국가로 급부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광주민주화 운동은 80년 5월 광주 전역에서 10일간에 걸쳐서 일어났다. 독재에 저항하여 수백 수천 명이 죽고 다치는 등 많은 희생을 치렀다.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폭도와 사태리는 표현에서 벗어나 민주화 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되고, 희생자들의 묘지는 국립묘지가 되었으며, 그 기간동안 만들어진 수많은 신문, 잡지, 유인물, 조서, 관계기관의 공문, 사진, 일기 등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민주화운동 사적지는 여러 군데에 나뉘어져 있지만 시내 한가운데 있는

구.전남도청과 광장, 분수대가 가장 중심지이다.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며 항쟁했던 본부이기에 이 인근은 치열한 총격전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도청건물 안팎의 총탄 자국, 멈춰선 시계탑과 분수대, 계엄군의 헬기에서 사격을 받은 전일 빌딩 등.

또 광주의 동쪽지역은 항쟁 과정에서 희생된 영령들이 곳곳에 잠들어 있다. 초기 희생자와 민주열사가 문헌 망월동 묘역, 국립묘지, 계엄군에 의해 암매장된 광주교도소와 주남마을 등.

또 서쪽지역은 계엄군이 주둔하였고 그들의 광주 시내 진입에 맞서며 목숨 걸고 싸웠던 산 자들의 저항 정신이 깃들어 있다. 대치선이었던 농성광장, 계엄군의 총구를 향해 걸어 들어갔던 죽음의 행진 거리, 항쟁 과정에서 구속되어 온갖 고문과 위협에 맞서야 했던 상무대 터에 새로 들어선 518 자유공원 등

암울했던 40여년전의 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알수 없는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러다 문득 518 자유공원의 입구에 있는 반달 모양의 조형



전남도청 앞 광장과 분수대



5.18국립묘지

물이 눈에 들어온 다. ‘들불열사기념비’ 군부독재로 어두웠던 시기, 밤마다 야학을 열어 노동자들에게 민주주의 의식을 심어줬던 7인의 열사들, 그들이 남긴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어느새 이 노래는 동남아 전역에 퍼져서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모든 민주화 운동가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어떤 K-팝 못지않은 영





망월동 묘역

향력, 분명한 메시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원조 한류라고나 할까?

광주의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아픔이자 어두운 역사지만, 지금도 광주는 묵묵히 그 아픔을 예술로, 문화로 승화시키고 있다. 열흘 간의 광주의 기록은 온 인류가 함께 지키고 가꿔야 할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광주의 사적지를 찾고 열사들의 넋을 기리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국가가 될 때, K-정치가 새로운 한류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광주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성지가 될 것이다. 🌻



들불열사 기념비

“

통일기도

그 언제서 부터인가 걸어오는 통일로 향하는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 지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이 일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걸어걸어걸어 가다보면
언젠가 통일이 오겠지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사천왕사지 통일기도는
낙수가 바위에 구멍을 뚫듯
영원히 함께 합니다

”

부천 통일기도

양한미 부천 좋은벗들

- **일시/장소** : 2022년 7월 10일 / 온라인
- **참석자** : 13명(권은하, 김영희, 김지숙, 박민자, 안영민, 이정우, 이정희, 이화순, 정준채, 최은숙, 김인화, 양한민, 정명법사)

소감 나누기

- 개마고원의 여름철의 평균 기온은 서울의 5월 날씨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개마고원에서 캠핑하면서 한달 정도 보내고 싶다. 남북 긴장관계를 먹고사는 이들이 측은하고 애처로워진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이 6.25와 같은 비극을 초래했다. 일상에서도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알아차림을 유지해야겠다.
- 평화통일기도 발원문의 내용이 기도할 때는 잘 생각나지 않았다. 발원문의 뜻을 잘 새기겠다.
- 원을 세우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통일기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참회한다. 통일과 같이 큰 문제 앞에는 나의 문제는 사소한 것이다.
- 통일기도에는 처음 참석했다. 통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 같다. 통일에 대해서 깨어있어야겠다.
- 많은 분과 같이 통일기도 하니까 에너지를 받아서 좋은 거 같다. 통일기도는 자기수행과 점검에 도움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발원문의 먼저 이해하고 화해하겠다는 내용이 가슴에 와 닿는다.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마음을 내도록 하겠다.



- 통일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통일기도가 개인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 통일기도에 처음 참여했다. 통일기도 발원문의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평화통일이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거 같다.
- 북한의 장마피해가 심하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식량난이 걱정이 된다.
- 기도 전에 많이 피곤했는데 천결기도와 통일기도까지 마치고 나니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개운해졌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실제 통일이 언제쯤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 많은 분들과 통일기도 하니까 에너지를 받는 거 같다. 분단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통일이 쉽지 않겠구나. 다양성을 인정하면 분단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 같다.
- 처음 통일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셔서 새롭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놓치는 분야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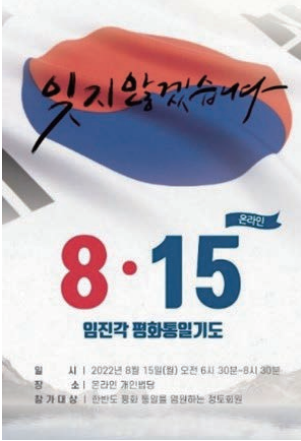
8.15 광복절 맞이 평화통일기도

장희정 성동 좋은벗들

- **참석자** : 23명(강지우, 고영주, 김병숙, 김소영, 김영조, 김원희, 김태연, 김혜숙, 문영술, 박명자, 박승혜, 박승희, 박춘호, 백은숙, 양윤덕, 이규선, 이문숙, 이순희, 임정은, 정미경, 제갈원, 한정선, 장희정)

소감 나누기

- 빛진 기분이 들어서 통일기도는 꼭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고조선부터 지금 현재 까지에 대해서 통일외병할 때 배웠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 스님이 굶어죽는 동포들을 위해서 호소하셨다는 말씀에 월광법사님이 이어가셨다는 것에 감동이었다. 선조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다.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 나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란 생각이 들었다.
- 호국영령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 들여 감사드렸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를 들으면 감동이었고, 아이들에게 통일을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월광법사님의 1인 시위에 감동이었다. 편안한 자리에서 정진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 조상, 호국영령들, 민족열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었다. 편안한 곳에서 정진할 수 있어서 좋았다. 미움, 원망들이 씻겨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 참회정진을 통해서 업장을 씻겨 나가면 좋겠다. 서독과 동독은 평화통일을 위해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한국은 13%도 안나온다는 것이 안타깝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국민이 평화에



- 대해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 아살 영화를 보면서 미움과 갈등이 올라왔는데 오늘 기도로 미움과 갈등이 사라졌다.
- 우리의 소원은 통일처럼 간절하게 통일을 염원하게 됩니다.
- 내 주변의 갈등은 통일이라는 큰 과제에서는 너무나 작게 느껴집니다.
- 300배 정진으로 평소에 잊고 있던 통일에 대한 염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통일기도 덕분에 살아있구나! 모든 이의 덕분에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음도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북한 주민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 광복절이 오늘은 어느때보다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다. 한사람의 분노,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의 분단된 모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나의 수행과 통일정진도 꾸준히 하여 통일의 첫 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300배를 하다보니 눈물이 나고, 월광법사님의 내면의 열정이 느껴지며 지금의 이 시간과 이 자리가 있구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통일을 염원하는 법사님이 계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 법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는 구절이 가슴에 와 닿았으며, 참회의 시간이 되었다. 🌸

- 참석자 : 275명 (현지 30명, 온라인 245명)

소감

- 8.15광복절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정토회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정진하였습니다.



그 언저서 부터인가 걸어오는 통일로 향하는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 지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이 일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걸어걸어걸어 가다보면
언젠가 통일이 오겠지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사천왕사지 통일기도는
낙수가 바위에 구멍을 뚫듯
영원히 함께 합니다. 🌻

후원해 주신 좋은벗들입니다

• 5월, 6월, 7월 신규 후원입니다. (2022. 5.1~2022.7.30)

000000002472	유미경	000000002492	정현주	000000002465	이명화
000000002473	이원석	000000002493	조미라	000000002466	김양희
000000002474	김익준	000000002494	최숙이	000000002467	강리원
000000002475	최재환	000000002495	임미희	000000002468	김미나
000000002476	권오현	000000002496	이미숙	000000002469	정윤재
000000002478	최이남	000000002497	김순희	000000002470	박신재
000000002479	이은숙	000000002498	강영희	000000002471	강종윤
000000002480	김현희	000000002499	강영희	000000002504	이슬지
000000002481	권은하	000000002500	청년영남해외	000000002505	장영자
000000002482	오희영	000000002501	안양법당	000000002506	박신서
000000002483	이지애	000000002502	통영법당	000000002507	홍성호
000000002484	오정심	000000002503	유원근	000000002512	박선훈
000000002485	이정순	000000002457	전영옥	000000002514	김소영
000000002486	전옥진	000000002458	최원상	000000002515	강혜영
000000002487	김애자	000000002460	백혜경	000000002517	김영희
000000002488	박호인	000000002461	이성운	000000002518	주종식
000000002489	정미현	000000002462	변소희	000000002523	김성연
000000002490	장 미	000000002463	LIHUILING	000000002524	김성아
000000002491	강정미	000000002464	이다경	000000002525	이경은

• 5월 후원입니다.

[일반후원회원]

김금숙	오환석	고광숙	기모란	김기연	김석순	김은란	김 혁	노지희	박경석	박선희	방서연	순규만	신주호
송영규	이지현	고미숙	김미숙	김남훈	김선문	김인식	김형익	드림앤앤양지점	박수일	배미령	손대성	신창연	
정경희	최선희	고지선	김현자	김대순	김선정	김재영	김홍희	류석현	박금옥	박애란	배상훈	손정숙	심언우
김익준	윤남희	곽봉준	김경란	김 만	김성진	김재호	김희경	류시성	박민경	박민경	백혜경	송승원	심지현
김병주	박현호	구미경	김경분	김미경	김승희	김정숙	남언우	류제표	박병진	박주영	백혜은	송태화	심흥아
박승호	유경희	구언연	김경희	김민정	김영실	김종순	노기선	류지현	박봉진	박준경	서석민	송필순	안도연
법륜스님	강용순	구자걸	김규혁	김민정	김영주	김진민	노옥재	문은영	박상미	박혜숙	설민영	신미란	안상호
오민정	강호일	권호순	김근식	김석범	김월금	김학련	노주형	문정연	박상호	박홍주	성광지	신숙경	안재성

오성일	임희진	한상훈	이원석	김나경	김정옥	박성원	손영희	윤태욱	이영희	정승연	최형숙	건축사사무소석원
오재민	장경원	한영옥	이효산	김대철	김정윤	박성준	손재선	윤후영	이응노	정안수	하기완	LI HUILING
오정숙	장도연	한용택	임순옥	김리원	김종복	박순옥	송기형	이갑성	이 인	정영미	하선아	김경은 이시훈
오정택	장성심	한지연	황수남	김명희	김종희	박순희	송민령	이경선	이재문	정은영	한규매	김경주 이원제
오지인	장영주	한혜오	강서연	김문영	김지영	박승우	송민석	이경숙	이정임	정정관	한미경	김도영 이은경
용채명	전미선	허지연	이덕기	김민중	김지은	박영주	송지우	이근진	이종인	정정영	한병기	김미영 이은설
우서정	전영옥	현효용	이영미	김백수	김진권	박재현	신순숙	이금림	이지미	정정희	한승희	김미자 이정희
유수스님	정경숙	홍지예	김세일	김봉환	김찬우	박정수	신순임	이기남	이판오	정현숙	한의규	김성혜 이창수
유우인	정근혜	홍진숙	임미순	김상원	김창수	박진현	신정원	이길엽	이현주	조세분	한태숙	김순영 임도영
유재성	정안숙	황화숙	강득록	김신경	김태완	박진희	신혜정	이동우	이혜경	조영구	함정호	김창민 장미애
윤여훈	정영구	박주하	강리원	김선희	김하정	박철웅	안봉진	이두희	이혜원	조해숙	허미혜	김창진 장호숙
윤영실	정준순	박진재	강보길	김성유	김 항	박태정	안성환	이두희	이화승	조혜정	허영숙	김화영 전옥진
윤옥순	정현태	오윤지	강유진	김세호	김항숙	박태희	안순희	이명숙	임수신	지명자	허윤숙	문예진 전우성
윤혜숙	정혜윤	이외산	강재성	김수녀	김현숙	박현님	안재호	이명순	임 철	지은아	허은희	박윤호 정언모
이경향	조경희	김동환	강태경	김수훈	김현우	박현숙	안정애	이명화	임혜진	지은정	허 준	박은아 정영수
이경희	조수진	문귀숙	강현기	김숙녀	김형숙	박형준	안정희	이미나	장경선	지현숙	현정련	서예랑 정월향
이길자	조연정	오문택	강희석	김승환	김형희	박홍남	양경희	이미란	장세만	차영석	호수경	송보섭 정정원
이덕아	조협	권오현	고경옥	김양지	김하숙	박희복	양혜영	이봉자	장정화	채수연	홍미경	송진웅 조정희
이명희	조희옥	박수미	고관규	김영은	김희준	배명자	양희준	이상진	장창호	채희주	황은단	신현희 최병숙
이상한	주동규	박순천	고병영	김용철	노경미	배준식	여경민	이상만	전구재	천성필	황인조	심진희 한대식
이서현	주선우	손은숙	고연화	김원달	노 란	백간순	여경화	이상열	전미애	최경민	강신준	안선영 한동필
이순자	지만규	신강희	고정순	김원진	노은하	백단심	여현주	이상필	전병찬	최고은	김해인	양기환 한승희
이오영	지상금	최재환	고지안	김원태	문보빈	백영일	오미옥	이선경	정구락	최광수	박동주	양연수 조금연
이유철	진광자	고은별	곽도순	김유연	문지영	백용대	오병찬	이선민	정란희	최다루한	김종호	오미현
이은민	최기진	권윤정	권미향	김은경	문태운	서영란	오세준	이선호	정래식	최대식	배선희	우현자
이정민	최동호	김미숙	권이슬	김은수	민영희	서영홍	오세철	이성미	정명화	최민서	신봉월	원춘경
이지은	최보이	오정심	권태영	김은자	민춘희	서주연	오진미	이성운	정미숙	최복희	정유진	유미환
이침애	최상민	이경화	권태윤	김은희	박경숙	서창무	오진환	이소현	정보성	최수지	최영화	유옥경
이창희	최웅선	이정순	권호기	김의권	박경훈	석선정	우복덕	이연순	정선경	최영자	김형국	유윤식
이철호	최원상	채영운	금두희	김인희	박경희	설정경	유은희	이연순	정선영	최장희	이희자	윤석황
이향애	최원석	박정옥	기세환	김재규	박근영	성향아	유정재	이 영	정성아	최정희	강미정	윤재송
이화경	최정연	소희주	김경실	김재민	박민식	손경연	윤상석	이영숙	정수희	최지원	강희선	이로은
임윤석	허연숙	오덕진	김경필	김재훈	박민정	손영미	윤은희	이영애	정순자	최진연	권정아	이상광
임진영	하지유	이복승	김귀남	김정옥	박분숙	손영상	윤인숙	이영익	정순진	최현서	김경애	이승용

[좋은이웃되기]

전보명	고유진	길현자	김경원	김분주	김선정	김영숙	김인식	김혜정	노혜원	문정연	박준경	박홍주	배미령
조은서	구영모	김기빈	김미경	김석순	김수진	김영자	김지훈	김희경	류시성	박선희	박현실	방미영	백혜경
강미선	구지걸	김경선	김민범	김선문	김수현	김윤범	김필선	노주형	류제표	박순화	박혜숙	방서연	변소희

변종임 이정순 정은영 황경석 김남선 김태희 박수우 양미진 이봉자 임수신 조주호
 서양숙 이정원 정지안 limeihua 김도연 김한수 박순희 양지연 이상현 임은숙 주혜숙 허윤숙 서성희 정원자
 서재원 이정은 정지윤 권교중 김동윤 김한영 박영덕 오병찬 이서영 임현식 지명자 홍경희 송병설 조순봉
 성혜정 이지은 조경희 양태희 김명수 김항숙 박영아 오윤주 이선민 장경선 최경민 홍순연 신보영 최홍숙
 송승원 이창희 조재익 구영희 김명신 김현정 박윤정 유남옥 이상애 장시은 최금자 홍효정 안선영 최성희
 송태화 이철호 조희옥 이원석 김보영 김현주 박인환 유두진 이수민 장지만 최복희 황수진 양홍심 한송희
 오성일 이필영 천인근 황승오 김봉환 김혜영 박재범 유정재 이 영 전미애 최선미 황지영 엄지선 한정수
 오정택 이향애 최경임 강득록 김선경 노경미 박정숙 윤득기 이원우 전외자 최양남 고성임 이로운 홍옥희
 웅채명 이현미 최순희 강문헌 김성열 노 란 박태희 윤여동 이 은 전은수 최은숙 고현정 이미애 황연주
 위라미 이혜경 최영화 강보길 김순정 노희산 박한님 윤정호 이 인 전정숙 최인미 구현오 이은경
 이다혜 이화경 최원석 강희배 김승호 류민경 박형준 윤충현 이인숙 정금도 최하균 권정아 이은우
 이미경 임지영 최형이 고정순 김승환 문경자 배정기 은상봉 이일현 정래식 최현숙 김경주 이정남
 이방숙 임진영 추항자 곽도순 김원진 문보빈 백강순 이경선 이재관 정문희 한건우 김규희 이정남
 이상한 임희경 하연숙 권지웅 김의경 문정희 백동화 이남운 이점순 정성호 한병기 김나형 이종필
 이서현 장수빈 하재남 금동숙 김의권 민춘희 설은자 이동규 이종승 정순자 한상윤 김태욱 이희자
 이외숙 장희정 한지연 금두희 김재민 박경숙 손영미 이동우 이종인 정윤재 한승희 문성해 임경희
 이유철 전혜준 허중보 길현배 김정실 박명복 손영희 이만영 이지현 정현숙 한운호 문예진 장계환
 이윤정 전혜진 허지연 김경현 김춘희 박성원 송지우 이명우 임미화 조남국 한정현 박세미 장말자
 이정민 정성희 현은영 김국환 김태완 박수영 신정원 이민영 임경란 조세분 함정호 박은아 전우성

[평화지킴이]

김희경 김석순 문정연 서수정 이상현 이필영 한서연 강복웅 김나경 김양희 김효심 박종훈 신정원 이동건
 신상룡 김선문 박신희 석지원 이새롬 이향애 한용탁 강옥선 김남심 김영숙 노경미 박주경 안순주 이동우
 양승용 김선옥 박순화 손상우 이서현 이혜경 한정수 강인숙 김대익 김영은 노 란 박태정 안영민 이두희
 정태임 김선정 박인경 송민선 이수경 이화경 한중엽 강혜인 김덕운 김원진 조성민 박태희 여인옥 이민영
 강미선 김수현 박정임 송승원 이순모 임지영 한지연 고정순 김동욱 김의권 문보빈 박한님 예병우 이봉자
 강은주 김용석 박중보 송태화 이영희 임진영 허중보 곽성일 김명숙 김재민 민춘희 박형준 예상희 이상건
 강정숙 김용표 박준경 신금년 이오영 장수빈 허지연 대산향도선사조성민 김정길 박경숙 배준식 예찬순 이상필
 고광숙 김은미 박현실 안원봉 이유철 장희정 현은영 구미선 김문영 김정철 박경옥 백강순 오병찬 이서영
 구자걸 김은정 박혜숙 안재성 이윤정 전부연 현희련 권두한 김미경 김중애 박미경 서동찬 오윤주 이선민
 권태역 김인식 박홍주 오성일 이정숙 정도현 홍진숙 권수경 김미옥 김중진 박민주 설은자 오은경 이숙형
 길미숙 김인영 방미경 오정택 이정순 정은영 황경석 권순범 김미현 김중태 박성미 성경직 오진환 이유진
 길현자 김재호 방미영 웅채명 이정원 조경희 박인숙 권순환 김반아솔 김중광 박성수 손동서 우순점 이영노
 김갑우 김정원 방찬희 유나경 이정희 조희옥 강경희 권혜진 김봉환 김지영 박성원 손영미 우영옥 이 인
 김경원 김창우 배미령 유시훈 이준석 채지영 유현복 금두희 김선경 김춘화 박순희 손영희 유정재 이일현
 김기성 김형준 백혜경 윤명선 이지은 최영화 유창연 길현배 김수안 김판신 박영아 송병순 유현정 이재관
 김대식 김혜정 변애란 윤정호 이창희 최원석 강득록 김경률 김수영 김항숙 박윤정 송은화 윤충현 이재호
 김미정 류시성 변지현 윤호숙 이철호 추항자 강문헌 김국희 김승환 김향희 박재범 송지우 이경희 이점순
 김석곤 류제표 서석민 이미경 이태희 하연숙 강보길 김기홍 김양숙 김형규 박정태 신미혜 이경희 이정민

이중인 장용창 정금도 조유진 채귀훈 최순환 한지혜 황미경 문현숙 안선영 이은경 MATSUHASHI SACHIYO
 이지현 전미애 정래식 조은미 천승영 최주호 함정호 권정아 박병관 안인옥 이혜림 조정미 황복현
 이진영 전병철 정문희 조정민 최경민 최현숙 허 준 김경란 박은아 오훈철 이희자 지서윤
 이해영 전성일 정현숙 주문돈 최고은 최현자 홍상수 김동식 세 웅 이경수 임채남 최인규
 임수신 전영은 정희숙 주혜숙 최복희 추순옥 황광철 김보경 송봉섭 이경철 장말자 최정희
 임현식 전지호 조세분 지명자 최선미 한병기 황순옥 문영일 신미경 이로운 장 미 한승희
 장경선 정경순 조수진 지현우 최수화 한승희 정영숙 문예진 신민경 이순길 전우성 현재근

[뉴스레터]

류제표 이지은 김승환 김현희 박경숙 오병찬 이선민 이중인 임성식 정금도 정선경 정현숙 최성희 한병기
 한승희 이은경

• 6월 후원입니다.

[일반후원회원]

김금숙 고지선 김미나 김형국 박선희 송태화 윤여훈 이창희 정혜윤 한영옥 손은숙 강리원 김경실 김영숙
 송영규 광봉준 김민정 김형익 박수일 송필순 윤영실 이철호 조경희 한용탁 신강희 강보길 김경필 김영은
 부천저희새터민나들이 김봉환 김홍희 박애란 신미란 윤옥순 이향애 조수진 한지연 청년영 강신준 김귀남 김용철
 안양과일보시 김석범 김희경 박인경 신숙경 윤혜숙 이혜경 조연정 한혜옥 남해외 강유진 김나경 김원진
 드림앤안양지점 김석순 남연우 박주영 신주호 이경향 이화경 조정희 허지연 권윤정 강재성 김대철 김원태
 정경희 구미경 김성문 노기선 박준경 신창연 이경희 임윤석 조 협 현효용 김미숙 강태경 김리원 김유연
 정기찬 구언연 김성정 노옥재 박혜숙 심연우 이길자 임진영 조희옥 홍지예 박정옥 강현기 김명희 김은경
 노진서 구자걸 김성진 노주형 박효인 심지현 이다경 임혜진 주동규 홍진숙 소희주 강희석 김문영 김은수
 박승효 권효순 김승희 노지희 박흥주 심홍아 이덕아 임희진 주선우 황화숙 오덕진 고경옥 김민중 김은자
 박현호 기모란 김영실 류석현 방서연 안도연 이명희 장경원 지민규 황수남 이경화 고관규 김백수 김은희
 법륜스님 갈미숙 김영주 류시성 배미령 안상호 이상현 장도연 지상금 고은별 이복승 고병업 김상원 김의권
 오민정 갈현자 김월금 류제표 배상훈 안재성 이서현 장성심 진광자 박주하 이원석 고연화 김선경 김인희
 오환석 김경란 김은란 류지현 백혜경 오성일 이순자 장영주 최기진 이영미 이효산 고지안 김선희 김재규
 이지현 김경분 김인식 문은영 백혜은 오재민 이오영 전미선 최동호 이혜림 임순옥 광도순 김성유 김재민
 최선희 김경희 김재영 문정연 서석민 오정숙 이유헌 전영옥 최복희 후원금 정성묵 권미향 김세호 김재훈
 정하린 김규혁 김재호 박경석 설민영 오정택 이은경 정경숙 최운선 문귀숙 김병주 권은하 김수녀 김정옥
 강용순 김근식 김정숙 박금옥 성광지 오희영 이은민 정근혜 최원삼 오문택 통영역 권이슬 김수훈 김정옥
 강중윤 김기연 김정임 박민경 손규만 용채영 이은숙 정미숙 최원석 이외순 사기행 권재영 김숙녀 김정윤
 강호일 김남홍 김중순 박병진 손대성 우서정 이정민 정안숙 최정연 채영운 이덕기 권태윤 김순영 김중복
 고광숙 김대순 김진민 박봉진 손영희 유수섭 이준순 정용구 하연숙 강성연 김세일 권호기 김승환 김중호
 고미숙 김미경 김학련 박상미 손정숙 유우인 이지은 정접순 하지유 박수미 황인경 금두희 김애자 김중희
 고정순 김미나 김 혁 박상호 송승원 유재성 이참한 정현태 한상훈 박순천 강득록 기세환 김양지 김지영

건국사사무소석원 박태희 손영미 양희준 이갑성 이신민 이화승 정순진 채희주 한미경 권경아 LI HUILING
 김지은 문태운 박현님 손영상 여경민 이경선 이선호 임미순 정승연 천성필 한병기 김경애 양연수 장효숙
 김찬우 민영희 박현숙 손재선 여경화 이경숙 이성미 임수신 정안수 최경민 한승희 김경주 오미현 전우성
 김창수 박경숙 박형준 송기형 여현주 이근진 이상운 임 철 정영미 최고은 한의규 김도영 우현자 정월향
 김태원 박경훈 박홍남 송민령 오명옥 이금림 이소현 장경선 정영수 최광수 한태숙 김미영 원춘경 정정원
 김하정 박경희 박희복 송민석 오미옥 이기남 이연순 장세만 정유진 최다루한 함정호 김미자 유미환 조금연
 김 향 박근영 배명자 송지우 오병찬 이길엽 이연순 장정화 정은영 최대식 허미혜 김성혜 유옥경 조정희
 김향숙 박동주 배선희 신봉월 오세준 이동우 이 영 장창호 정정관 최민서 허영숙 김순영 유윤식 최병숙
 김현숙 박민식 배준식 신순숙 오세철 이두희 이영숙 전귀재 정정영 최보이 허윤숙 김진권 윤재승 최숙이
 김현우 박민정 백건순 신순임 오지인 이두희 이영애 전병찬 정정희 최상민 허은희 김창민 윤태승 한대식
 김현지 박성원 백단심 신정원 오진미 이명숙 이영익 정구락 정현숙 최수지 허 준 김창진 이로운 한동필
 김현희 박성준 백영일 신현희 오진환 이명순 이영휘 정란희 조세분 최영자 현정련 김화영 이상광 한승희
 김형숙 박순옥 백용대 신혜정 우복덕 이명화 이은경 정래식 조영구 최창희 호수경 문예진 이승용
 김형희 박순희 서영란 안봉진 유은희 이미나 이 인 정명화 조해숙 최창희 홍미경 박본숙 이시훈
 김화숙 박승우 서영홍 안성환 유정재 이미란 이정임 정미숙 조혜정 최지원 황은단 박윤호 이원제
 김희준 박영주 서주연 안순희 윤상석 이봉자 이종인 정보성 지명자 최진연 황인조 박은아 이은실
 노경미 박재현 서창무 안재호 윤석황 이상건 이진미 정선경 지은아 최현서 이정숙 서예량 이응노
 노 란 박정수 석선정 안정애 윤은희 이상만 이판오 정선영 지은정 최현숙 정인모 송봉섭 이정희
 노은하 박진현 설정경 안정희 윤인숙 이상열 이현주 정성아 지현숙 하기완 이희자 송준용 이창수
 문보빈 박진희 성향아 양경희 윤태욱 이상필 이혜경 정수희 차영석 하선아 감미정 심진희 임도영
 문지영 박철웅 손경연 양혜영 유희영 이선경 이혜원 정순자 채수연 한규매 강희선 양기환 장미애

[좋은이웃되기]

광명지회봉사자석대 류제표 성혜정 이윤정 장수빈 최원석 권은하 김성열 김현정 박영덕 양미진 이동규 이 인
 전보명 김석순 문정연 손영희 이은숙 장희정 최현이 권지웅 김순정 김현주 박영아 양지연 이동우 이인숙
 조은서 김선문 박선희 송승원 이정민 전해준 추항자 금동숙 김승호 김혜영 박윤정 오병찬 이만영 이일현
 강미선 김선정 박순화 송태화 이정순 전해진 하연숙 금두희 김승환 노경미 박인환 오윤주 이명우 이재관
 고유진 김수진 박준경 오성일 이정은 정성희 하재남 길현배 김영숙 노 란 박재범 박선경(법성스님) 이점순
 고정순 김수현 박현실 오정택 이지은 정은영 한지연 김경현 김원진 노희산 박태희 유남욱 이민영 이종승
 구영모 김영자 박혜숙 용채명 이창희 정지안 허종보 김국환 김의경 류민경 박현님 유두진 이봉자 이종인
 구자걸 김윤범 박홍주 위라미 이철호 정지윤 허지연 김남선 김의권 문경자 박형준 유미경 이상현 이지현
 길현자 김민식 방미영 이다경 이필영 조경희 현은영 김도연 김재민 문보빈 배정기 유정재 이서영 임미화
 김가빈 김지훈 방서연 이다혜 이향애 조재익 권교중 김동윤 김정실 문정희 백건순 윤득기 이신민 임경란
 김경선 김필선 배미령 이미경 이현미 조희옥 정현주 김명수 김춘희 박경숙 백동화 윤여동 이성에 임경희
 김경원 김혜정 백혜경 이방숙 이혜경 천인근 구영희 김명신 김태원 박명복 설은자 윤정호 이수민 임수신
 김미경 김희경 변소희 이상한 이화경 최경임 강득록 김문영 김태희 박성원 손영미 윤충현 이 영 임은숙
 김민범 노주형 변종임 이서현 임지영 최보희 강보길 김민정 김한수 박수영 손익련 은상봉 이원우 임현식
 김봉환 노혜원 서양숙 이외숙 임진영 최순희 강화배 김민정 김한영 박순우 송지우 이경선 이 은 장경선
 김보주 류시성 서재원 이유철 임희경 최영화 광도순 김선경 김향숙 박순희 신정원 이남운 이은경 장서우

장사은	정래식	조남국	최금자	최한구	한운호	홍옥희	강문현	김경주	박은아	양홍식	이정남	전우성	최현미
장지만	정문희	조세분	최선미	최현숙	한정현	홍효정	강정미	김규희	서성희	엄지선	이종필	정원자	한송희
전외자	정성호	조주호	최양남	한건우	함정호	황경석	고성임	김나형	송봉섭	이로운	이희자	조순봉	황연주
전은수	정순자	주혜숙	최은숙	한병기	허은숙	황수진	고현정	문성해	송선희	이미애	장계환	최동숙	
전정숙	정은재	지명자	최이남	한상윤	홍경희	황지영	구현오	문예진	신보영	이은우	장말자	최성희	
정금도	정현숙	최경민	최인미	한승희	홍순연	황승오	권정아	박세미	안선영	이정남	MATSUHASHI SACHIYO		

[평화지킴이]

김희경	김수현	박흥주	윤명선	이향애	현은영	김남심	김정길	박성원	여인옥	이유진	정영숙	추순옥	신미경
신상룡	김용석	방미경	윤정호	이혜경	현희련	김대익	김정철	박순희	예병우	이은경	정현숙	한병기	신민경
양승용	김영표	방미영	윤호숙	이희경	홍진숙	김덕운	김종배	박영아	예상희	이 인	정희숙	한송희	안선영
정태임	김은미	방찬희	이경희	임지영	박인숙	김동욱	김종진	박윤정	오병찬	이일현	조세분	한지혜	안인옥
강미선	김은정	배미령	이미경	임진영	유현복	김명숙	김종태	박재범	오윤주	이재관	조수진	함정호	오훈철
강은주	김인식	백혜경	이상한	장수빈	강경희	김문영	김중광	박종태	오은경	이재호	조유진	허 준	이경수
강정숙	김인영	변애란	이새름	장희정	강득록	김미경	김지영	박종훈	오진환	이점순	조은미	홍상수	이경철
고광승	김재호	변지현	이서현	전부연	강보길	김미옥	김춘화	박주경	우순점	이정민	조정민	황경석	이로운
고정순	김정원	서석민	이수경	정도현	강복웅	김미현	김판신	박태희	우영옥	이종인	주문돈	황광철	이순길
구자걸	김창우	서수정	이순도	정은영	강옥선	김민정	김향숙	박현민	유정재	이지애	주혜숙	황미경	이응노
권태억	김형준	석지원	이영희	조경희	강인숙	김민정	김향희	박형준	유창연	이지현	지명자	황순옥	이혜림
길미숙	김혜정	손상우	이오영	조희옥	강혜인	김반아슬	김형규	배준식	유현정	이진영	지현우	강문현	이희자
길현자	노현숙	손영희	이규철	채지영	곽성일	김서은	김효심	백강순	윤충현	임수신	채귀훈	권정아	임채남
김갑우	류시성	송민선	이윤정	최복희	권두한	김선경	노경미	서동찬	이경희	임현식	천승영	김경란	장말자
김경원	류제표	송승현	이은숙	최영화	권수경	김수안	노 란	설은자	이경희	장경선	최경민	김동식	장 미
김기성	문정연	송태화	이정민	최원석	권순범	김수영	대산항	성경직	이동건	장서우	최고은	김민기	전우성
김대식	박경옥	신금년	이정숙	추항자	권순환	김승환	도신사	손동식	이동우	장용창	최선미	문영일	조정미
김미경	박선희	안원봉	이정순	하연숙	권은하	김양숙	조성민	손영미	이두희	전병철	최수화	문예진	지서윤
김미정	박순화	안재성	이정희	한서연	권혜진	김양희	문보빈	송병순	이민영	전성일	최순환	문현숙	최정희
김봉환	박인경	예찬순	이준식	한용탁	금두희	김영숙	박경숙	송은화	이봉자	전영은	최이남	박원관	한송희
김석곤	박정일	오성일	이지은	한정수	길현배	김영숙	박경옥	송지우	이상간	전지호	최인규	박은아	현재근
김석순	박종보	오정택	이창희	한종영	김경률	김영은	박미경	신미혜	이상필	정경순	최주호	세 웅	황복현
김선문	박준경	용채명	이철호	한지연	김국희	김원진	박민주	신정원	이서영	정금도	최현숙	송봉섭	
김선옥	박현실	유니경	이태희	허종보	김기홍	김의권	박성미	안수주	이선민	정래식	최현자	송선희	
김선정	박혜숙	유시훈	이필영	허지연	김나경	김재민	박성수	안영민	이숙형	정문희	MATSUHASHI SACHIYO		

[뉴스leter]

류제표	이지은	김승환	김현희	박경숙	오병찬	이선민	이은경	이종인	임성식	정금도	정선경	정현숙	최성희
한병기	한송희												

• 7월 후원입니다.

[일반후원회원]

김금숙	김미경	문은영	신숙경	이오영	조수진	이외순	고지안	김순영	김현희	박희복	여경민	이상건	전규재
송영규	김미나	문정연	신주호	이유철	조연정	김성연	곽도순	김순희	김형숙	배명자	여경화	이상만	전병찬
별투스님	김민정	박경석	신창연	이은경	조정희	강성연	권미향	김승환	김형희	배준식	여현주	이상열	정구락
이지현	김봉환	박금옥	심연우	이은민	조 협	고은별	권은하	김애자	김희숙	백강순	오명옥	이상필	정란희
정경희	김석범	박민경	심지현	이은숙	조희옥	권윤정	권이슬	김양지	김희준	백영일	오미옥	이선경	정래식
최선희	김석순	박병진	심흥아	이정민	주동규	김미숙	권재영	김영숙	노경미	백용대	오병찬	이선민	정명화
박승호	김선문	박봉진	안도연	이정순	주선우	박수미	권태윤	김영은	노 란	서영란	오세준	이선호	정미숙
박현호	김선정	드림앤인양지점	이지은	지민규	박순천	권호기	김용철	노은하	서영홍	오세철	이성미	정보성	
오환석	김성진	박상미	안상호	이창한	지상금	손은숙	금두희	김원진	문보빈	서주연	오진미	이성운	정선경
이슬지	김승희	박상호	안재성	이창희	진광자	신강희	기세환	김원태	문지영	서창무	오진환	이소현	정선영
주중식	김영실	박선희	오민정	이철호	최기진	이경화	김경실	김유연	문태운	석선정	우복덕	이연순	정성아
강용순	김영주	박수일	오성일	이향애	최동호	김병주	김경필	김은경	민영희	설정경	유은희	이연순	정수희
강종윤	김월금	박애란	오재민	이혜경	최보이	김세일	김경희	김은수	박경숙	성향아	유정재	이 영	정순자
강혜영	김은란	박인경	오정숙	이화경	최복희	정동희	김귀남	김은자	박경훈	손경연	윤상석	이영숙	정순진
강호일	김인식	박주영	오정택	임미희	최상민	박정옥	김나경	김은희	박경희	손영미	윤석황	이영애	정승연
고광숙	김재영	박준경	오지인	임은식	최용선	소희주	김대철	김의권	박근영	손영상	윤은희	이영익	정인수
고미숙	김재호	박혜숙	오희영	임진영	최원상	오덕진	김리원	김인희	박민식	손재선	윤인숙	이영휘	정영미
고정순	김정숙	박호인	용채명	임희진	최원석	이복승	김명희	김재규	박복숙	송기형	윤태욱	이은경	정은영
고지선	김중순	박홍주	우서정	장경원	최정연	이원석	김문영	김재민	박선훈	송민령	윤후영	이은노	정정관
곽봉준	김진민	방서연	유수님	장도연	하연숙	이효산	김미경	김재훈	박성원	송민석	이갑성	이 인	정정영
구미경	김학련	배미령	유우인	장성심	하지유	임순옥	김민정	김정옥	박성준	송지우	이경선	이재문	정정희
구언연	김 혁	배상훈	유원근	장영자	한상훈	정기찬	김민정	김정옥	박순옥	신순숙	이경숙	이정임	정현숙
구자걸	김형국	백혜경	유재성	장영주	한영옥	이영미	김민정	김정윤	박순희	신순임	이근진	이종인	조세분
권호순	김형익	백혜은	윤여훈	전미선	한용탁	이덕기	김민중	김중복	박승우	신정원	이금림	이진미	조영구
기모란	김홍희	서석민	윤영실	전영옥	한지연	강득록	김백수	김중희	박신서	신현희	이기남	이판오	조혜숙
길미숙	김희경	설민영	윤옥순	정경숙	한혜옥	강리원	김상원	김지영	박영주	신혜정	이길엽	이현주	조혜정
길현자	간축사사무소석원	윤혜숙	정근혜	허지연	강보길	김선경	김지은	박재현	안봉진	이동우	이혜원	지명자	
김경란	남연우	성광지	이경향	정미숙	현효웅	강유진	김선희	김진권	박정순	안선영	이두희	이희승	지은아
김경분	노기선	순규만	이경희	정미현	홍지예	강재성	김성유	김찬우	박진현	안성환	이두희	임미순	지은정
김경희	노옥재	손대성	이길자	정안숙	홍진숙	강태경	김세호	김창수	박진희	안소희	이명숙	임수신	지현숙
김규혁	노주형	손영희	이다경	정용구	황효숙	강현기	김소영	김태원	박철웅	안재호	이명순	임 철	차영석
김근식	노지희	손정숙	이덕아	정정순	박주하	강희석	김수녀	김하정	박태희	안정애	이명화	임혜진	채희주
김기연	류석현	송승원	이명희	정현태	이영미	고경옥	김수훈	김 향	박현님	안정희	이미나	장경선	천성필
김남홍	류시성	송태화	이상현	정혜윤	채영운	고관규	김숙녀	김향숙	박현숙	양경희	이미란	장세만	최경민
김대순	류제표	송필순	이서현	조경희	문기숙	고병엽	김순남	김현숙	박형준	양혜영	이미숙	장정화	최고은
김 만	류지현	신미란	이순자	조미라	오문택	고연화	김순영	김현우	박홍남	양희준	이봉자	장창호	최광수

최다루한	최지원	한미경	허영숙	홍성호	이희자	권정아	김창민	박은아	양연수	이로운	이창수	정윤희	한동필
최대식	최진연	한병기	허윤숙	황인조	정유진	김경애	김창진	백단심	오미현	이상광	이혜경	조정희	한승희
최민서	최현서	한승희	허은희	강신준	김성아	김경주	김화영	서예량	우현자	이승용	임도영	채수연	후원금
최수지	최현숙	한규규	허준	박동주	정언모	김도영	문예진	송봉섭	원춘경	이시훈	장미애	최병숙	이경은
최숙이	하기완	한태숙	현정련	김종호	강미정	김미영	민춘희	송전용	유미환	이원재	장효숙	최정희	
최영자	하선아	함정호	호수경	배선희	강영희	김미자	박민정	심진희	유옥경	이은설	전우성	한대식	
최장희	한규매	허미혜	홍미경	신봉월	강희선	김성혜	박윤호	양기환	윤재승	이정희	정영수	LI HUILING	

[좋은이웃되기]

전보명	김인식	서재원	이창희	천인근	권은하	김의경	박명복	양지연	이성애	전외자	최현미	김경주	이희자
이솔지	김지훈	성혜정	이철호	최경임	권지웅	김의권	박성원	오병찬	이수민	전은수	최현숙	김규희	임경희
조은서	김필선	손영희	이필영	최복희	금동숙	김재민	박수영	오윤주	이 영	전정숙	한건우	김나형	장계환
강미선	김혜정	송승원	이향애	최순희	금두희	김정실	박순우	유남욱	이원우	정금도	한병기	김영희	장말자
고정순	김희경	송태화	이현미	최영화	길현배	김춘희	박순희	유두진	이 은	정래식	한상윤	문성해	전우성
구영모	노주형	오성일	이혜경	최원석	김경현	김태완	박영덕	유미경	이은경	정문희	한승희	문예진	정원자
구자걸	노혜원	오정택	이화경	최현이	김국환	김태욱	박영아	유정재	이 인	정성호	한운호	민춘희	최동숙
길현자	류시성	용채명	임미희	추향자	김남선	김태희	박인환	윤득기	이인숙	정순자	한정현	박세미	최성희
김기반	류제표	위라미	임지영	하연숙	김도연	김한수	박재범	윤여동	이일현	정문재	함정호	박은아	한승희
김경선	문정연	이다경	임진영	하재남	김동윤	김한영	박정숙	윤정호	이재관	정현숙	허윤숙	서성희	한정수
김경원	박선희	이다혜	임희경	한지연	김명수	김향숙	박태희	윤춘현	이점순	조남국	홍경희	송봉섭	황연주
김미경	박순화	이미경	장수빈	허종보	김명신	김현정	박현님	은상봉	이정원	조세분	홍순연	송선희	limeihua
김민범	박준경	이방숙	장희정	허지연	김문영	김현주	박형준	이경선	이중승	조주호	홍옥희	신보영	
김봉환	박현실	이상한	전혜준	현은영	김민정	김혜영	배정기	이남은	이종인	주혜숙	홍효정	안선영	
김분주	박혜숙	이서현	전혜진	황경석	김민정	노경미	백강순	이동규	이지현	지명자	황수진	양홍심	
김석순	박홍주	이외숙	정성희	권교중	김선경	노 란	백동화	이동우	인미화	최경민	황지영	엄지선	
김선문	방미영	이유철	정은영	구영희	김성열	노희산	설은자	이만영	임경란	최금자	황승오	이로운	
김선정	방서연	이윤정	정지안	강득록	김수정	류민경	손영미	이명우	임수신	최선미	강정미	이미애	
김수진	배미령	이은숙	정지윤	강문현	김순희	문경자	손익련	이만영	임은숙	최양남	고성임	이은우	
김수현	백혜경	이정민	조경희	강보걸	김승호	문보빈	송지우	이봉자	임현식	최은숙	고현정	이정남	
김영숙	변소희	이정순	조미라	강희배	김승환	문정희	신정원	이상현	장경선	최이남	구현오	이정남	
김영자	변종임	이정은	조재익	고유진	김영숙	박경숙	양미진	이서영	장서우	최인미	권정아	이종필	
김윤범	서양숙	이지은	조희옥	곽도순	김원진	박선경(법성스님)	이선민	장지만	최한구	MATSUHASHI SACHIYO			

[평화지킴이]

김희경	강미선	고광숙	길미숙	김기성	김봉환	김선옥	김용표	김인영	김형준	류제표	박선희	박종보	박홍주
신상룡	강영희	고정순	길현자	김대식	김석곤	김선정	김은미	김재호	김혜정	문정연	박순화	박준경	방미경
양승용	강은주	구자걸	김갑우	김미경	김석순	김수현	김은정	김정원	대산향도선사조성민	박인경	박현실	방미영	
이솔지	강정숙	권태역	김경원	김미정	김선문	김용석	김인식	김창우	류시성	박경옥	박정임	박혜숙	방찬희

배미령	윤정호	이필영	한서연	곽성일	김민정	김종광	박재범	예병우	이수경	전병철	최경민	김경란	이혜림
백혜경	윤호숙	이향애	한용탁	권두한	김민정	김지영	박정태	예상희	이숙형	전성일	최고은	김동식	이희자
변애란	이경희	이혜경	한정수	권수경	김반아슬	김춘화	박종훈	오병찬	이유진	전영은	최선미	김민기	임채남
변지현	이미경	이화경	한종엽	권순범	김서은	김판신	박주경	오윤주	이은경	전지호	최수화	김영희	장말자
서석민	이상현	임미희	한지연	권순환	김선경	김향숙	박태희	오은경	이응노	정경순	최순환	문예진	장 미
서수정	이세롭	임지영	허중보	권은하	김수안	김향희	박현님	오진환	이 인	정금도	최이남	문현숙	전우성
석지원	이서현	임진영	허지연	권혜진	김수영	김형규	박형준	우순점	이일현	정래식	최인규	민춘희	조정미
손상우	이순모	장수빈	현은영	금두희	김순희	김효심	배준식	우영옥	이재관	정문희	최주호	박병관	최정희
손영희	이영희	장희정	현희련	길현배	김승환	노경미	백강순	유정재	이재호	정영숙	최현숙	박은아	한송희
송민선	이오영	전부연	홍진숙	김경률	김양숙	노 란	서동찬	유현정	이점순	정현숙	최현자	세 웅	현재근
송승원	이유철	정도현	황경석	김국희	김양희	대산항	설은자	윤충현	이정민	정희숙	추소옥	송복섭	
송태화	이윤정	정은영	박인숙	김기홍	김영숙	도선사	성경직	이경희	이정원	조세분	한병기	송선희	
신금년	이은숙	정태임	유창연	김나경	김영숙	조성민	손동석	이경희	이중인	조수진	한승희	신미경	
안원봉	이정민	조경희	강경희	김남심	김영은	문보빈	손영미	이동건	이지애	조유진	한지혜	신민경	
안재성	이정숙	조미라	유현복	김대익	김완진	박경숙	송병순	이동우	이지현	조은미	함정호	안선영	
예찬순	이정순	조희옥	강득록	김덕운	김의권	박경옥	송은화	이두희	이진영	조정민	허 준	안인옥	
오성일	이정희	채지영	강문현	김동욱	김재민	박미경	송지우	이민영	이혜영	주문돈	홍상수	오훈철	
오정택	이준석	최복희	강보길	김명숙	김정길	박민주	신미혜	이봉자	임수신	주혜숙	황광철	이경수	
용채명	이지은	최영화	강복웅	김문영	김정철	박성수	신정원	이상근	임현식	지명자	황순옥	이경철	
유나경	이창희	최원석	강옥선	김미경	김종애	박성원	안순주	이상필	장경선	지현우	황미경	이로운	
유시훈	이철호	추항자	강인숙	김미옥	김종진	박순희	안영민	이서영	장서우	채귀훈	권정아	이순길	
윤명선	이태희	하연숙	강혜인	김미현	김종태	박영아	여인옥	이선민	장용창	천승영	MATSUHASHI SACHIYO		

[뉴스레터]

류제표 이지은 김승환 김현희 박경숙 오병찬 이선민 이은경 이중인 임성식 정금도 정선경 장현숙 최성희
한병기 한승희

<좋은벗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벗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평화로운 세상,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삶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시간으로,
돈이 있으신 분은 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께
마음 속의 사랑을 선물로 드립니다.

